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록

- 일 시 : 2019. 1. 29.(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부길만,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한태식(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현상변경(고압산소탱크 이설)	3
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현상변경(공원조성)	5
3	2019년 근대문화재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재난시스템) 추진	7
4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문화재 등록	16
5	「인제성당」 문화재 등록	24

【검토사항】

6	「만해 한용운 심우장」 문화재(사적) 지정 검토	35
7	「곡성 태안사 해회당」 문화재 등록 검토	51
8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	61
9	「관동의병대장기」 문화재 등록 검토	70
10	「유인석 친필 서액」 문화재 등록 검토	85

【보고사항】

11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계획보고	99
12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 결과보고	101

심 의 사 항

1.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고압액화산소탱크 저장소 이설’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고압액화산소탱크 저장소 이설’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강북삼성병원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문화재로부터 이격 거리 41m)
- 현상변경허용기준(1구역) : 개별 심의

- 신청내용 : 고압액화산소탱크 저장소 이설

- 위치 : (당초)경교장으로부터 서쪽 58m이격지점(기존 저장소 철거)
(변경)경교장으로부터 북쪽 41m이격지점(장례식장 옆)
- 규모 : (당초)저장소-연면적 30.14㎡, 지상1층/ 탱크-2×5m, 용량 12.117톤
(변경)저장소-연면적 35.94㎡, 지상1층/ 탱크-3×4m, 용량 13.052톤

라. 현지조사 의견 (2019.1.23.) : 문화재위원 000, 문화재전문위원 000

- 의료용 산소 저장을 위한 액화산소 옥외저장소는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병원 필수설비 설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교장의 경관 측면에서 이전, 설치 장소가 병원 본관건물에 의해 경교장과 시각적으로 완전 분리되고 소규모 시설물이므로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경교장의 안전성 측면에서 액화산소 옥외저장소의 설치, 가동 등 모든 절차가 가스안전공사의 규정, 검사, 감독에 따라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마. 보존정책과 의견(2019. 1. 18.)

- 해당 사업은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1구역(개별심의)에 해당 함
- 신청 규모로는 경희궁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결과에 따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용흥궁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계획하는 '용흥궁 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강화군청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2(관청리)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405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이격 거리 0m)
 - 현상변경허용기준(1구역) : 개별 심의
- 신청내용 : 용흥궁 공원 조성(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야외계단 보수 포함)
 - 변경내용 : (당초) 주차장(약 67대), 광장 등
(변경) 주차장(약 24대), 공원(8,474㎡) 등 조성
 - 포장공사 : 박석 243㎡, 점토 블럭 1,200㎡, 화강석 판석 186㎡ 등
 - 시설공사 : 야외무대 1개소, 붓과 벼루 상징물 1개소, 의자, 계단(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 조경공사 : 소나무 126주, 과목 3,400주, 지피 8,400본, 잔디 등
 - 부대공사 : 전기·통신 공사

라. 서면검토 의견 (2019. 1. 14.) : 문화재위원 000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야간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용흥궁 공원 전체에 대한 조명계획 수립이 필요함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측 경사면 및 계단형 지형을 포함하여 용흥궁 공원 전체의 배수계획 수립이 필요함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부지 내 경사면의 계단은 원형 고증을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확인을 받아 복원 정비되어야 함
- 이 공원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이 가장 잘 보이는 조망지역이므로 공원 방문객이 머물며 성당을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파고라, 벤치 등)의 추가적 조성을 권고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출석 11명 / 보류 11명

3. 2019년 근대문화재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재난시스템) 추진

가. 제안사항

2019년 근대문화재(등록, 근대사적)의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근대문화재(등록, 근대사적)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함
 - 1차 평가회의 : '18. 8. 7.(화) / 평가위원 : 윤인석, 김문수, 안창모, 권기혁, 김성도, 고정주
 - 2차 평가회의 : '18. 12. 6.(목) / 평가위원 : 윤인석, 신안준, 김문수, 안창모, 권기혁, 고정주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안전기준과장)
- (2) 사업기간 : '19년 1월 ~ 사업 종료 시까지
- (3) 사업대상 ※ 국고보조비율(국비:지방비) : 사적 (7:3) / 등록문화재 (5:5)
 - [근대문화재과] 문화재 보수정비 ▶ 상세목록: 붙임 1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20	2,441	1,709	732	
등록 문화재	부동산	109	12,156	6,078	6,078	
	동산	8	435	217.5	217.5	
	근대역사문화공간	10	16,850	8,425	8,425	개별(군산)4건 포함
	소 계	127	29,441	14,720.5	14,720.5	
합 계		147	31,882	16,429.5	15,452.5	

- [안전기준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전기, 소방, 방범) 구축 ▶ 상세목록: 붙임 2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5	800	462	338	
등록문화재		1	140	70	70	
합 계		6	940	532	408	

(4)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사업시행, 사업 감독 등
 - ※ 중요 사안은 단위 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별도 심의 후 사업 시행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근대사적, 등록문화재] 세부현황

□ 총 147건 : 근대사적(20건), 등록문화재(127건)

(단위: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총 계					16,429,250	15,452,850	31,882,100	
서울 소계					2,591,550	1,859,950	4,451,500	
서울	강북구	등록 530	서울 여운형 묘소	대체 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 기존 진입로 복구정비	67,000	67,000	134,000	
서울	동대문구	등록 269	서울 청량리역 검수차고	구조 정밀안전진단	11,000	11,000	22,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원형고증복원(망루, 공작사 창호), 보수정비(망루 줄눈, 담장 몰탈 제거, 우물 보수, 병사창고 균열보수)	210,000	90,000	30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석축, 경사면, 배수로 보수정비	231,000	99,000	33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	70,000	30,000	10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	서울 독립문	독립문 기록화 사업	56,000	24,000	8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276	서울 연세 대학교 언더우드관 (Underwood Hall)	보수 사전설계 (노후 외벽 목재 창호 및 덧창)	35,000	15,000	50,000	
서울	성북구	등록 268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보수 사전설계 (지붕, 미장, 마루, 기둥, 창호, 기단, 배수로 정비)	10,000	10,000	20,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기록화 사업	35,000	15,000	50,000	
서울	용산구	사적 520	서울 용산신학교	기록화 사업	35,000	15,000	50,000	
서울	은평구	등록 458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유물 보존 및 전시용 보관함 제작	12,750	12,750	25,500	동산
서울	종로구	등록 584	서울 경기 상업고등학교 본관 및 청송관	원형고증 지붕보수	478,000	478,000	956,000	
서울	종로구	등록 84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서울	종로구	등록 89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	사랑채 보수(기둥 부식목, 회벽, 기단, 미장, 칠, 창호), 안채보수(목부 니스 제거 및 칠), 배수로 정비	45,000	45,000	90,000	
서울	종로구	등록 93	서울 배화 여자고등학교 생활관	지붕 번와 보수	99,000	99,000	198,000	
서울	종로구	등록 585	서울 기상관측소	외벽 타일 보수 복원	128,000	128,000	256,000	
서울	종로구	사적 248	서울 대한의원	구조 정밀안전진단	42,700	18,300	61,000	
서울	종로구	사적 279	구 공업전습소 본관	외부 비늘판벽 보수, 보수정비 사전설계 (세미나실 원형복원)	105,000	45,000	150,000	
서울	종로구	등록 672	서울 배화학원 캐롤라이나관	원형고증보수정비(지붕, 포치, 창호), 보수정비(조적벽돌 및 줄눈)	300,000	300,000	600,000	
서울	종로구	등록 585	서울 기상관측소	문화재기록화사업 (해체실측기록포함)	30,000	30,000	6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사적 497	서울 이화장	부속실 지붕재 교체	23,100	9,900	33,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 윤보선가	안채 지붕 번와	231,000	99,000	330,000	
서울	종로구	등록 2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	교육박물관 보수정비(화단부 원지형 복원, 배수로 정비, 외벽 세척)	23,000	23,000	46,000	
서울	중구	사적 252	서울 약현성당	기록화 사업	42,000	18,000	60,000	
서울	중구	사적 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 정비(회미장, 조적벽 균열부 및 파손재, 창호도장)	70,000	30,000	100,000	
서울	중구	사적 256	서울 정동교회	기록화사업, 보수정비(균열보수, 기둥보강)	70,000	30,000	100,000	
서울	중구	등록 1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문화재 기록화 사업	34,000	34,000	68,000	
서울	중구	등록 3	서울 이화여자 고등학교 심슨기념관	문화재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서울	서울	사적 254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배수로 정비	24,500	10,500	35,000	
서울	서울	등록 237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파사드면 보수(균열보수, 세척, 강화처리)	14,000	14,000	28,000	
서울	서울	등록 40	서울 창녕위궁 재사	기와 고르기, 담장 회미장 보수	5,500	5,500	11,000	
서울	서울	등록 171	서울 누하동 이상범 기옥과 화실	누수지붕보수, 위험담장보수	4,000	4,000	8,000	
부산 소계					143,000	143,000	286,000	
부산	서구	등록 494	부산 전차	구조안전진단 및 과학적 분석 비용, 보존처리 설계 및 공사비	118,000	118,000	236,000	동산
부산	서구	등록 568	부산 경남 고등학교 덕형관	문화재 보수정비 위한 사전설계(원형고종직업 포함)	25,000	25,000	50,000	
대구 소계					149,900	109,100	259,000	
대구	동구	등록 303	대구 구 동촌역사	누수 지붕보수	25,000	25,000	50,000	
대구	동구	등록 4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현관 포치 보수	36,000	36,000	72,000	
대구	중구	사적 442	구 대구의학 전문학교 본관	보수정비(외벽 모르타르 및 백화제거, 외벽 도장 및 흉통 보수)	36,400	15,600	52,000	
대구	중구	사적 290	대구 계산동성당	구조 정밀안전진단	35,000	15,000	50,000	
대구	중구	등록 252	대구화교협회	회미장 보수 및 도장	17,500	17,500	35,000	
인천 소계					47,500	47,500	95,000	
인천	중구	등록 427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강당	누수 임시예방 조치, 원형 고종 및 보수 사전설계(벽체, 지붕), 캐노피보수	27,500	27,500	55,000	
인천	중구	등록 246	인천 선린동 공화춘(共和春)	문화재 보수(기둥, 외벽, 내부 바닥)	20,000	20,000	40,000	
광주 소계					25,000	25,000	50,000	
광주	남구	등록 158	광주 구 수피아 여학교 수피아 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원형고종연구, 보존관리, 활용계획 등)	25,000	25,000	50,000	
대전 소계					42,000	42,000	84,000	
대전	대전	등록 18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구조 정밀안전진단	42,000	42,000	84,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경기 소계					227,000	227,000	454,000	
경기	고양시	등록 599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문화재 기록화 사업	15,000	15,000	30,000	
경기	고양시	등록 649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기존 건물 정비를 위한 설계 및 공사비	15,000	15,000	30,000	동산
경기	김포시	등록 542	구 김포성당	외벽 세척	5,000	5,000	10,000	
경기	부천시	등록 539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탈산보존방향 연구 및 탈산처리	17,000	17,000	34,000	동산
경기	부천시	등록 605	만화 코주부삼국지	탈산보존방향 연구 및 탈산처리	8,000	8,000	16,000	동산
경기	수원시	등록 697	수원 구 소화 (小花)초등학교	보수정비(지붕, 창호, 마루 등 원형복원/ 내부벽체, 흙통, 지장 수목 정비)	109,500	109,500	219,000	
경기	용인시	등록 708	용인 고초골 공소	기단보수	5,000	5,000	10,000	
경기	용인시	등록 708	용인 고초골 공소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25,000	25,000	50,000	
경기	파주시	등록 78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관람 데크 및 난간 보수	17,500	17,500	35,000	동산
경기	포천시	등록 271	구 포천성당	배수로 설치 및 진입로 보수	10,000	10,000	20,000	
강원 소계					686,300	686,300	1,372,600	
강원	철원군	등록 23	구 철원 제일교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3	구 철원 제일교회	구조보강적정성검토, 사전설계(구조보강)	15,000	15,000	30,000	
강원	철원군	등록 22	철원 노동당사	노동당사 보수보강사업	100,000	100,000	200,000	
강원	철원군	등록 112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교량 보수	86,000	86,000	172,000	
강원	춘천시	등록 61	춘천 소양로성당	보수정비 (마루, 도머창 환기구, 출입문)	35,000	35,000	70,000	
강원	태백시	등록 166	구 태백등기소	문화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강원	태백시	등록 166	구 태백등기소	보수정비(천정, 균열부수지처리, 배 수시설정비, 내외벽도장)	45,000	45,000	90,000	
강원	태백시	등록 167	태백경찰서 망루	문화재 기록화 사업	15,000	15,000	30,000	
강원	태백시	등록 167	태백경찰서 망루	망루 보수(방수, 미장, 출입문)	17,000	17,000	34,000	
강원	화천군	등록 110	화천 꺼먹다리	설계 및 공사비(교량 장선 보수)	333,300	333,300	666,600	
충북 소계					116,000	116,000	232,000	
충북	괴산군	등록 144	괴산군수 관사	안채 기와 번와	47,000	47,000	94,000	
충북	영동군	등록 47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	급수탑 균열 및 방수 보수, 안전 펜스 및 화단 설치	50,000	50,000	100,000	
충북	제천시	등록 717	윤강선생유고 및 부록 (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본지 보호 위한 표지 제작 및 재장정, 3책에 대한 보존처리 설계 및 공사비	19,000	19,000	38,000	동산
충남 소계					123,000	123,000	246,000	
충남	공주시	등록 233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보수정비 (회미장 보수 및 창호 복원, 전기 보수)	23,000	23,000	46,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충남	공주시	등록 472	공주 제일교회	정밀안전진단	17,500	17,500	35,000	
충남	금산군	등록 682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문화재 기록화 사업	22,500	22,500	45,000	
충남	금산군	등록 682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종합정비계획 수립	30,000	30,000	60,000	
충남	논산시	등록 650	강경성당	조명보수	7,500	7,500	15,000	
충남	논산시	등록 48	논산 연산역 급수탑	급수탑 주변 바닥 정비, 우물 덮개 정비	12,500	12,500	25,000	
충남	예산군	등록 627	예산 천사 괘불도 및 오여래·사보살 팔금강도	문화재 6점에 대한 훼손도 등 정밀조사 실시	10,000	10,000	20,000	동산
전북 소계					3,219,500	3,015,500	6,235,000	
전북	군산시	등록 183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경관조명 설치	35,000	35,000	70,000	
전북	군산시	등록 677	군산 둔율동 성당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기록화	46,000	46,000	92,000	
전북	군산시	등록 719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용역, 근대역사문화자원 학술조사	450,000	450,000	900,000	역사 공간
전북	군산시	등록 719-4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 회사 공장	원형복원 설계 및 정밀실측 조사 (신흥동 일본식가옥 원형복원 설계 포함)	150,000	150,000	300,000	역사 공간
전북	군산시	등록 719-5	군산 경기화학약품 상사 저장탱크	기록화(정밀실측)	25,000	25,000	50,000	역사 공간
전북	군산시	등록 724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 회사	기록화(정밀실측), 건축자산 매입(토지, 건물)	1,750,000	1,750,000	3,500,000	역사 공간 (개별)
전북	군산시	등록 723	군산 빈해원	기록화(정밀실측)	30,000	30,000	60,000	역사 공간 (개별)
전북	군산시	등록 725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 사 사택	기록화(정밀실측)	30,000	30,000	60,000	역사 공간 (개별)
전북	군산시	등록 726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기록화(정밀실측)	30,000	30,000	60,000	역사 공간 (개별)
전북	군산시	사적 545	구 군산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수립	31,500	13,500	45,000	
전북	김제시	등록 219	김제 신흥동 근대 한옥	한옥 보수정비	50,000	50,000	100,000	
전북	완주군	등록 221	완주 구 삼례양수장	벽체보수 및 지붕세척	48,500	48,500	97,000	
전북	익산시	사적 318	익산 나바위 성당	강당권역 정비, 화장실권역 정비, 보수정비 사전설계 (탐방로 정비, 전통 수종 갱신, 유구 안내판 등)	301,000	129,000	430,000	
전북	익산시	사적 318	익산 나바위 성당	사적 내 노출 전선관 및 소방배관 지중화	24,500	10,500	35,000	
전북	익산시	등록 211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가옥 내부 바닥 보수	10,000	10,000	20,000	
전북	전주시	등록 172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지붕 원형 복원공사	53,500	53,500	107,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5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지붕 원형 복원공사	50,000	50,000	100,000	
전북	정읍시	등록 276	정읍 나용군 생가와 사당	주변정비 (설계, 주변 지장물 철거 및 부지 정비)	50,500	50,500	101,000	
전북	정읍시	등록 215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좌측 지붕부 보수	54,000	54,000	108,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전남 소개					7,215,500	7,215,500	14,431,000	
전남	고흥군	등록 660	고흥 소록도 마리아와 마렛 사택	고흥소록도 마리아와 마가렛 사택 주변 석축 신설	21,000	21,000	42,000	
전남	고흥군	등록 제67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보수공사	87,500	87,500	175,000	
전남	고흥군	등록 227	고흥 구 풍양금융조합	보수 위한 설계 및 공사 (창호, 벽체)	25,000	25,000	50,000	
전남	곡성군	등록 228	곡성 단군전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곡성군	등록 222	곡성 구 삼기면사무소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곡성군	등록 700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곡성군	등록 700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곡성 성륜사 안심당·육화당 설계비	15,000	15,000	30,000	
전남	곡성군	등록 122	구 곡성역사	기록화 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광양시	등록 341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가옥 보수정비공사	132,500	132,500	265,000	
전남	구례군	등록 121	구례 구 방광국민학교 교사	구례 구 방광국민학교 교사 해체보수	508,000	508,000	1,016,000	
전남	구례군	등록 121	구례 구 방광국민학교 교사	공사 감리비	20,500	20,500	41,000	
전남	나주시	등록 34	구 나주경찰서	지붕해체 보수 및 구조보강	125,000	125,000	250,000	
전남	담양군	등록 265	담양 삼지천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이내)	15,000	15,000	30,000	
전남	목포시	등록 696	목포 정광정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50,000	50,000	100,000	
전남	목포시	등록 114	목포 양동교회	기록화사업	20,000	20,000	40,000	
전남	목포시	등록 30	구 목포 공립심상소학교	내부 창호복원	43,500	43,500	87,000	
전남	목포시	등록 718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보수, 종합정비계획 수립, 정밀실측 및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 구축	3,250,000	3,250,000	6,500,000	역사 공간
전남	목포시	등록 718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16개소 매입	2,260,000	2,260,000	4,520,000	역사 공간
전남	보성군	등록 699	보성 안규홍·박제현가옥	문화재 기록화 및 보수 (안채: 기단, 지붕 / 사랑채: 기단, 지붕, 부식목) 위한 사전 설계	50,000	50,000	100,000	
전남	순천시	등록 126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정밀 안전진단 및 설계 (부식목, 벽체, 바닥), 창호 보수공사	35,000	35,000	70,000	
전남	여수시	등록 170	구 제일은행 여수지점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남	여수시	등록 367	여수 사도·추도 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11,500	11,500	23,000	
전남	여수시	등록 116	여수 마래 제2터널	위험낙석 조사, 낙석 제거 및 처리	40,000	40,000	80,000	
전남	여수시	등록 32	여수 구 애양원교회	배수로 설치	50,000	50,000	100,000	
전남	영광군	등록 678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25,000	25,000	50,000	
전남	영암군	등록 368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75,000	75,000	150,000	
전남	장흥군	등록 131	장흥 기양리 일본식 가옥	지붕 해체 보수(설계 및 공사)	70,000	70,000	14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전남	함평군	등록 117	구 함평성당	내부 창호복원, 수장 및 도장공사	50,000	50,000	100,000	
전남	함평군	등록 118	함평 월호리 일본식 기옥과 창고	배수로 정비	6,000	6,000	12,000	
전남	화순군	등록 274	화순 오지호 생가	화실, 담장, 석축 정비	100,000	100,000	200,000	
전남	화순군	등록 275	화순농협 동부지점	담장 정비	25,000	25,000	50,000	
경북 소계					795,000	795,000	1,590,000	
경북	문경시	등록 706	문경 가은양조장	설계 및 안전진단	30,000	30,000	60,000	
경북	문경시	등록 326	문경 구 불정역사	역사 외부 마감재 보수	50,000	50,000	100,000	
경북	문경시	등록 304	문경 구 가은역	종합정비계획수립	30,000	30,000	60,000	
경북	상주시	등록 278	상주 구 내서면사무소	해체보수공사	150,000	150,000	300,000	
경북	안동시	등록 654	안동교회 예배당	구조안전진단 용역	25,000	25,000	50,000	
경북	영양군	등록 255	영양 구 용화 광산 선광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30,000	30,000	60,000	
경북	영주시	등록 720	영주 근대 역사문화거리	종합정비계획수립, 근대 건축자산 기초조사, 마을학술조사	450,000	450,000	900,000	역사 공간
경북	칠곡군	등록 285	칠곡 구 왜관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30,000	30,000	60,000	
경남 소계					490,000	490,000	980,000	
경남	거창군	등록 259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6,000	6,000	12,000	
경남	밀양시	등록 204	밀양 상동터널	터널 정밀안전진단, 설계, 보수공사	160,000	160,000	320,000	
경남	산청군	등록 260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91,000	91,000	182,000	
경남	산청군	등록 281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68,000	68,000	136,000	
경남	의령군	등록 365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담장보수공사(등록구역 내 정비)	25,000	25,000	50,000	
경남	진주시	등록 35	진주 문산성당	본당 배수로 정비 및 본당 마루보수, 강당기단보수, 설계비	70,000	70,000	140,000	
경남	진주시	등록 154	진주 옥봉성당	정면 출입문 교체공사, 설계비	20,000	20,000	40,000	
경남	창원시	등록 198	구 마산현병 분건대	편의시설 정비 공사(화장실)	50,000	50,000	100,000	
제주 소계					558,000	558,000	1,116,000	
제주	제주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15,000	15,000	30,000	
제주	제주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보강공사 및 내부 모니터링	150,000	150,000	300,000	
제주	제주	등록 306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사라봉 일제동굴진지 입구 붕괴 방지시설	33,000	33,000	66,000	
제주	제주	등록 409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지휘소 보수정비 공사	200,000	200,000	400,000	
제주	제주	등록 409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구술 채록 및 아카이브 구축	40,000	40,000	80,000	
제주	제주	등록 309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출입구 붕괴 방지시설	75,000	75,000	150,000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제주	제주	등록 680	제주 대정 여자 고등학교 실습실 (육군 98병원 병동)	기록화 사업	25,000	25,000	50,000	
제주	제주	등록 716	제주4·3수악 주둔소	기록화(원형고증)	20,000	20,000	40,000	

[붙임 2]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국고보조사업 [근대사적, 등록문화재] 세부현황

□ 전기, 소방, 방법 분야(6건 : 근대사적 5, 등록 1)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분야	2019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계	
총 계					532,000	408,000	940,000	
서울 총계					322,000	278,000	600,000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기	225,000	225,000	4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381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방법	70,000	30,000	1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 윤보선가	소방	7,000	3,000	1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 윤보선가	전기	20,000	20,000	40,000	
강원 총계					70,000	70,000	140,000	
강원	원주시	등록 703	원주 제1야전군사령부 구 청사	소방	70,000	70,000	140,000	
전북 총계					140,000	60,000	200,000	
전북	익산시	사적 318	익산 나바위성당	방법	140,000	60,000	200,000	

4.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도 춘천시 소재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11.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등록신청 명칭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 (2) 대상문화재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청운길 41(효자동 397-1)
 - 용도 : 종교시설(교육원)
 - 소유자 :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효자동 400))
 - 수량 및 면적 : 2동(지상 2층), 건축면적 580.63㎡, 연면적 1034.67㎡(건축물대장)
*등록예고 기간 중 측량면적 705㎡
 - 건립시기 : 1959년(신축), 1962년(증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등록예고 : 2018. 12. 10. ~ 2019. 1. 8.(30일간) *의견접수 1건
 - (재)춘천교구 천주교회 의견('18.12.28) 요약
 - 당초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로 시작하였지만 60여년의 시간동안 여러용도로 사용되었음.
 - 그 중에도 많은 시간 천주교 춘천교구 신앙교육의 요람으로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춘천시민과 천주교 신자들이 '교육원'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등록 예고된 명칭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수련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함.
-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000 문화재위원회(2018.10.1.)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1959년 최초 완공되고 1962년 증축된 건물로 수녀원 수련소로 최초 활용되다 대학 기숙사, 미혼모보호소, 교구 교육원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강원도 천주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적 건물임
- 두 동의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적벽돌 마감 외벽, 경사지붕, 돌출된 현관부, 대칭형 구성 등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유사하지만, 1962년 완공 건물은 1958년 완공 건물과 달리 외관에서 수직적 굴뚝, 수평적 돌림띠, 모서리 벽면 등을 강조하며 기하학적으로 구성됨
- 1962년 완공 건물 2층은 성당은 제단 후면 벽면에서 내외부로 보여지는 십자가 형태의 구조체, 내부 천장에 노출된 시저스 트러스(Scissors Truss) 형식의 목조 구조체 등이 특징임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이상과 같은 역사성과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10.1.)

- 오늘날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이 자리 잡은 곳이 인근에 위치한 춘천교구 주교관, 효자동 성당 및 교구청 등과 함께 과거부터 강원도내 가톨릭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장소성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건립 시기를 달리하는 두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 건축적 방법 등은 등록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00 OO대학교 교수(2018.10.1.)

-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고자하는 춘천교구 교육원은 춘천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음.
- 본 건축물은 건축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실내와 외부의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련소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청운길 41
4. 소유자 : 재단법인 춘천교구천주교회(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00 (효자동 400))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준공일 : 1958년(건축물대장) 신축, 1962년 증축
 - 수량 및 면적 : 2동, 건축면적 580.63㎡, 연면적 1,034.67㎡(건축물대장)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8.10.01) >

1) 개요

- 강원 지역은 18세기말 천주교 전래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가 관할하다 1938년 춘천지목구가 경성대목구에서 분리, 설정되면서 아일랜드계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가 관할
- 천주교 춘천교구는 1938년 춘천지목구로부터 기원된 후 1955년 춘천대목구로의 승격과 함께 지목구장이었던 아일랜드 출신 킨란(Quinlan Thomas, 1896~1970년) 신부가 최초 주교로 임명되었으며 1962년 교계제도(敎階制度) 도입으로 정식 교구로 승격
- 천주교 춘천교구 본부는 본래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등록문화재 제54호) 일대에 있었으나 교세 확장으로 공간, 시설이 부족해지자, 킨란 신부가 현재 교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효자동 일대에 1958년 주교관을 건축하고 본부를 이전
- 춘천 교구 최초 주교인 킨란 신부는 효자동 지역에 주교관 신축 후 강원도 지역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목적으로 1959년 수녀원 수련소를 설립하였으며, 이 건물은 이후 여러 용도를 거쳐 현재는 춘천교구 교육원으로 활용중
- 현재 효자동 춘천교구청에는 주교관, 교육원 외에 성당, 교구청 본관, 부속건물 등이 함께 위치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춘천교구 최초 주교인 킨란 신부가 효자동 지역에 주교관을 1958년 완공하고 본부를 이전한 후, 강원도 지역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목적으로 수녀원 수련소를 설립

- 수녀원 수련소는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연도가 1958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58년 주교관 완공 후 공사를 시작하여 1959년 상반기 완공되었고 건축과정에는 주교관 건축을 담당했던 중국인 가(賈)씨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
- 1959년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춘천 수련소로 운영되다 1962년 식당, 성당, 교실, 작업실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2층 건물을 증축
- 1969년부터 춘천 간호대학 기숙사, 1977년부터 춘천교구의 교육을 담당하는 가톨릭 교육원, 1979년부터 미혼모보호소 마리아의 집 등으로 활용되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춘천교구 교육원으로 활용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1959년 완공된 2층 건물과 1962년 증축된 2층 건물이 1층 건물을 중앙에 두고 상호 연결되어 구성되었으며, 중앙부 1층 건물의 구체적 건축시기, 변형과정은 현재로서는 불확실
- 1959년 완공 건물은 기숙사 용도로 기본적 건축형식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적벽돌 벽체마감, 경사지붕이며 중앙부에 현관, 로비, 계단실을 두고 대칭형으로 중복도형 평면을 구성하고 외관에서 굴뚝을 높게 돌출시켜 강조
- 1962년 완공 건물은 기본적 건축형식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적벽돌 벽체마감, 경사지붕이며, 외관에서는 인조석 물씻기 기법으로 마감된 현관, 굴뚝, 창문 주위 수평띠, 건물 네 모서리 부분을 감싸는 벽체 등이 특징
- 1962년 완공 건물의 2층은 성당과 교육실로 구성되었으며 성당은 제단 후면 벽면에서 내외부로 보여지는 십자가 형태의 구조체, 내부로 노출된 시저스 트러스(Scissors Truss) 형식의 목조 구조체 등이 특징
- 두 동의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적벽돌 마감 외벽, 경사지붕, 돌출된 현관부, 대칭형 구성 등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유사하지만, 1962년 완공 건물은 1959년 완공 건물과 달리 외관에서 수직적 굴뚝, 수평적 돌림띠, 모서리 벽면 등을 강조하며 기하학적으로 구성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지붕 마감재, 창호 등이 외관에서 변형되고 2층 성당과 교육실의 내부 마감 등이 변형되었으나, 기본적 구조체, 평면 및 공간구성, 외부 벽체, 현관과 굴뚝 등의 특징적 요소는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춘천교구에서는 춘천교구 교육원이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등록문화재 제54호), 춘천 소양로 천주교회(등록문화재 제161호)와 함께 교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 건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효자동 일대에서 주교관, 교구청, 효자동 성당, 부속건물 등과 함께 위치하며 교구측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춘천교구 측에서는 춘천교구 교육원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등록 후 강원도 천주교의 역사를 전시하고 연구하는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활용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관련시설 중 성당 이외의 등록사례로는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등록문화재 제513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등록문화재 제655호),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브레디관, 헨리관, 식당동(등록문화재 681호) 등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1959년 최초 완공되고 1962년 증축된 건물로 수녀원 수련소로 최초 활용되다 대학 기숙사, 미혼모보호소, 교구 교육원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강원도 천주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적 건물
- 두 동의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적벽돌 마감 외벽, 경사지붕, 돌출된 현관부, 대칭형 구성 등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유사하지만, 1962년 완공 건물은 1958년 완공 건물과 달리 외관에서 수직적 굴뚝, 수평적 돌림띠, 모서리 벽면 등을 강조하며 기하학적으로 구성
- 1962년 완공 건물 2층은 성당은 제단 후면 벽면에서 내외부로 보여지는 십자가 형태의 구조체, 내부 천장에 노출된 시저스 트러스(Scissors Truss) 형식의 목조 구조체 등이 특징
-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이상과 같은 역사성과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명칭인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 또는 최초 용도이자 명칭이었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구 춘천 수련소’
- 정확한 등록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중앙부 1층 건물의 건축시기와 변형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8.10.01) >

1) 개요

- 오늘날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은 1959년 춘천대목구의 초대 주교인 ‘퀸란(Thomas F. Quinlan, 1955-1966)’신부가 강원도 지역 선교를 담당할 수녀 양성을 위한 수련소(당시 명칭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련소’)를 주교관(1958년 건립) 옆 현재의 위치에 지상2층 규모로 건립. 이후 1962년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수련소 건물과 연결하여 증축하여 확장함.
- 건축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주교관 건축공사를 담당하였던 중국인 기술자 ‘가(價)’씨가 건립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교관은 오늘날에도 춘천교구 교구장 주교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1950년대에는 ‘성 골롬반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숙소와 춘천교구의 교구청 역할까지 수행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이후, 1969년에 ‘효자동 성당’ 및 ‘교구청’이 건립됨에 따라 천주교신자들 사이에서 이곳은 강원도내 가톨릭 교회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교회의 행정과 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음.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련소’는 1969년 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후 ‘구 춘천 간호대학 기숙사’와 ‘춘천교구 가톨릭교육원’, ‘착한 목자 수녀회의 수녀원 및 마리아의 집’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1986년부터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으로 사용 중에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전반적인 외부형태는 1959년 최초 건립(소위, A동)된 건물과 1962년 증축(소위, B동)된 것, 그리고 이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부속건물 등 크게 3개의 매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부속건물은 두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B동을 건축할 당시에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보임.
- A동과 B동 건물 모두 2층의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건물 모두 각각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의 대칭을 이루고 있고 두 건물 사이에 1층으로 지어진 부속건물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A동 건물은 건립 당시 일종의 숙소인 생활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내부공간은 1,2층 모두 중앙의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편에 각 실들을 배치하였는데 현재도 이 공간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
- 이와 달리, B동 건물은 1층의 일부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간을 넓은 통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성당과 교실, 식당, 작업실(제봉실)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현재에도 식당과 강의실, 성당,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 두 건물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붉은 벽돌의 조적으로 마감하고 중앙부에 돌출된 현관을 구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건축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B동의 경우 양 측면부의 디자인 수법 등에서 A동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두 건물의 정면과 배면에는 굴뚝을 설치하였으나 외부 마감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A동은 경사 모임지붕에 아스팔트청글로 마감하였고 지붕면의 전,후,좌,우면에 각 1개소씩의 도머창을 설치한 반면, B동은 동판으로 마감한 맞배지붕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도머창은 설치하지 않았음.
- 두 건물 모두 목조트러스로 지붕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B동은 2층 천정부가 모두 노출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A동은 반자로 마감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음.
- 건물의 구조체와 달리 창호 및 내부 벽체 및 바닥 마감재 등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A동 건물 내부에 설치된 중앙 계단은 본래의 목조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부속건물의 뒤편에 덧붙여진 창고는 최근에 증축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 보임. 오랜 기간 동안 용도변경 등 사용과정에서 실내 일부 바닥 마감재, 창틀(문), 내부 마감재 등의 교체가 있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활용 중에 있고 또한, 춘천교구측에서 주교관 등과 함께 이곳을 강원도내 가톨릭 교회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기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강원도 천주교회사를 알리는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소양로성당과 죽림동성당을 연계하여 강원지역의 천주교 신앙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춘천교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천주교 유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성당 및 사제관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본당이 아닌 수녀 양성을 위한 수련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례와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오늘날 ‘천주교 춘천교구 교육원’이 자리 잡은 곳이 인근에 위치한 춘천교구 주교관, 효자동 성당 및 교구청 등과 함께 과거부터 강원도내 가톨릭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다는 장소성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건립 시기를 달리하는 두 건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낸 건축적 방법 등은 등록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춘천 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수련소」

< 000 00대학교 교수(2018.10.01) >

1) 개요

-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고자하는 춘천교구 교육원(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련회 수련소)은 춘천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어져 있음
본 건축물은 건축문화적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본 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춘천은 물론 강원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증축으로 2동으로 되어 있음.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실내와 외부의 일부가 변형되었지만,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음
- 일부 변형된 부분의 복원에 있어,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벽돌조에 기와지붕으로 전형적인 박공형을 유지하고 있음. 지붕은 목조트러스조로 되어 있음. 특히 2층의 목조 트러스 일부가 실내로 돌출되어 있어, 실내의 벽 상부와 목조 트러스 구조와의 상관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부로 돌출된 굴뚝이 실내에서 잘 확인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부 증축과 실내의 용도 변경으로 변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임
- 증축으로 생긴 연결 복도(가설 건축물)를 해체하여 별동을 구분하고, 연결로 변형된 벽체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본 건축물과 주변의 종교 관련 건축물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 새로 지은 교육 및 사무공간도 보존 신청 건축물과 같은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고, 스카인라인도 잘 유지되고 있어, 용도 이상의 지역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장 설명회에서, 본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부님이 직접 보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점진적으로 춘천교구의 건축물을 보존하여 지역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음
- 춘천교구에서는 본 건축물을 한국 천주교 교회사 자료관(박물관 등)과 교회사 관련 세미나 및 그룹 스터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음. 본 건축물을 보존하기에 이상적인 건축물이자 역사의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특히 본 건축물 앞에는 보기 힘든 마르니에 나무가 있고, 주변의 여유공간으로 지역주민이 근대건축물과 호흡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큼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 건축물과 같은 시기에 지은 광주교구 브렌디관(1961년, 등록)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건축물이외에 교구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점적인 요소로서의 건축물로서보다는, 근대건축물이 그룹핑으로 보존되어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지역의 가치는 더불어 상승하고, 근대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신청자료에 근거함.

5. 「인제성당」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도 인제군 소재 「인제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11.27.)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인제성당」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인제성당
- (2) 대상문화재 : 인제성당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25번길 12
 - 용도 : 종교시설
 - 소유자 : 재단법인 춘천교구 천주교회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476.66㎡, 연면적 476.66㎡
*등록예고 중 측량면적 : 525㎡
 - 건립시기 : 1956년
 - 구조 : 조적조
- (3) 등록예고 : 2018. 12. 10. ~ 2019. 1. 8.(30일간) *의견없음
-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8.11.7.)**

-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치하에서 공회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지붕 등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일부 벽체만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설됨
- 성당으로서 특이하게 성당 측벽에 사제관이 연결되어 건축됨으로서 일반적 성당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비대칭형의 평면과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박공지붕도 양측의 경사면을 비대칭형으로 구성됨
- 정면 입면은 지붕 박공면의 비대칭적 구성을 극복하고 정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에 가벽을 세워 대칭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벽체에서 두드러지게 돌출된 붙임기둥(Pilaster)과 수평띠(Cornice), 주종탑과 양측의 부종탑으로 구성된 3개의 종탑이 특징적 요소임
- 이상과 같은 역사성, 지역성,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7.)**

-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또한 38선 이북에 건립되어 의미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현저한 변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7.)**

- 건립 배경 및 그 내력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특히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기초를 이용한 사실 등은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본당과 사제관 하나의 건물로 축조한 방법은 동시대 기타 성당건축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건축면적과 측량면적 차이점 조사 후 조치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인제 성당 (구) 인제 성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성당) (원) 종교시설(성당)
3.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25번길 12
4. 소유자 : (재) 춘천교구 천주교회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
 - 준공일 : 1956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건축면적 476.66㎡, 연면적 476.663㎡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위원(2018.11.07)>

1) 개요

- 인제 성당은 아일랜드계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가 관할하는 천주교 춘천교구 소속으로 1954년 6월 설립된 후 현재 성당 뒤쪽의 공터에서 천막, 콘서트 건물 등 임시용 성당을 건설하고 선교활동을 전개
- 1955년 5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현재 성당을 착공하여 1956년 6월 완공하였으며, 본래 북한치하에서 공회당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벽체만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설
- 인제 성당은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춘천교구의 여러 성당에서 재임하며 다수의 성당 건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뉴질랜드 출신의 후베르토 신부가 설계
- 후베르토 신부가 관여하였던 성당으로는 춘천교구의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등록 문화재 제54호), 홍천 성당(등록문화재 제162호), 속초 동명동 성당, 인제 성당, 장성 성당 등이 대표적 사례
- 인제 성당은 1954년 2월 당시 세계적 여배우였던 마린린 먼로(Marilyn Monroe, 1926~1962년)가 방한하여 폐허된 공회당을 무대로 사용하며 대규모 미군 위문공연을 하였던 장소로도 유명
- 인제 성당은 인제 향교(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3호)와 인접하여 현상변경 1구역내에 위치하며, 언덕 위에 위치한 대형 건축물로서 인제 지역의 대표적 경관요소이자 상징적 랜드마크(Landmark)로 역할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인제 성당은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춘천교구의 여러 성당 건축에 관여하였던 후베르트(Hubert Hayward, 한국명 오남성, 1917~2006년) 신부가 설계하였으며,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착공하여 1956년 완공
-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치하에서 공회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지붕 등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일부 벽체만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설
-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적벽돌을 쌓고 목조트러스 지붕을 올리고 전면 종탑, 주출입구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중층을 형성하였으며,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 뽀칠 위 도색 마감하고 지붕은 동판으로 마감
- 성당으로서 특이하게 성당 좌측벽에 사제관이 연결되어 건축됨으로서 일반적 성당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비대칭형의 평면과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박공지붕도 양측의 경사면을 비대칭형으로 구성
- 정면 입면은 지붕 박공면의 비대칭적 구성을 극복하고 정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에 가벽을 세워 대칭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벽체에서 두드러지게 돌출된 붙임기둥(Pilaster)과 수평띠(Cornice)에 의해 면을 분할하고 각 면에 아치형, 원형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주종탑과 양측의 부종탑으로 구성된 3개의 종탑이 특징적 요소
- 성당은 장축 25.9m, 단축 12.8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을 구성하고 제단 반대편에 2층의 성가대석을 설치하였으며, 예배실 내부는 기둥이 없는 통칸(通間) 공간을 형성하고 천장은 완만한 곡면을 형성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부 마감재료가 변형되었지만, 평면, 형태, 공간, 구조 등 기본적인 건축형식은 건축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상태도 양호
- 1988년 함석에서 동판으로 지붕재료 교체, 2009년 구조안전진단 후 기초보강과 바닥마루 교체, 2014년 외벽 보수 및 도색 등을 공사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성당에서 지속적 보존의지를 가지고 유지관리하고자 하고 있고 인접한 인제 향교(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03호)의 현상변경 1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성당 측에서는 성당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천주교 성당의 등록문화재는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춘천교구의 등록문화재 사례로는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제54호, 1953년 건축), 춘천 소양로 성당(제161호, 1956년 건축), 흥천 성당(제162호, 1955년 건축), 구 포천성당(제271호, 1955년 건축), 강릉 임당동성당(제457호, 1955년 건축) 등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인제 성당은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춘천교구의 여러 성당 건축에 관여하였던

후베르트(Hubert Hayward, 한국명 오남성, 1917~2006년) 신부가 설계하였으며, 195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착공하여 1956년 완공

-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치하에서 공회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한국전쟁 당시 포격으로 지붕 등 상부구조가 파괴되어 일부 벽체만 남아 있던 건물의 콘크리트 기초를 그대로 이용하여 건설
- 성당으로서 특이하게 성당 측벽에 사제관이 연접되어 건축됨으로서 일반적 성당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비대칭형의 평면과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박공지붕도 양측의 경사면을 비대칭형으로 구성
- 정면 입면은 지붕 박공면의 비대칭적 구성을 극복하고 정면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에 가벽을 세워 대칭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벽체에서 두드러지게 돌출된 붙임기둥(Pilaster)과 수평띠(Cornice), 주종탑과 양측의 부종탑으로 구성된 3개의 종탑이 특징적 요소
- 인제 성당은 이상과 같은 역사성, 지역성,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인제 성당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07)>

1) 개요

- 본 건축물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선인 38선 이북에 세워진 1950년대 종교건축물로 미군의 원조에 의하여 지어졌음. 당시 강원도 내 천주교 건축물 건립에 관여했던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신부들이 이 건축물의 건립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오 후베르 토 신부’(Hubert Hayward, 한국 명 오남성)의 도움으로 흥천성당 제9대 주임신부 최동호 신부가 건설하였다고 보고되었음(천주교 인제성당 등록문화재 등록자료 구축 및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보고서)
- 건립이후 관리 및 변화과정은
 - 1988. 9. 5 - 11. 20 지붕교체(함석->동판), 외부 벽체공사 및 도색(본타일 마감)
 - 2001. 6. 15 - 10. 28 내부정비 및 외부 도색
 - 2009. 5. 24 - 5. 30 성당구조안전 진단 후 기초보강 공사, 마루 철거 후 재설치, 기초 시멘트 500포대 타설
 - 2010. 6. 30 - 7. 14 성당 내외문 교체공사(속문->목재, 바깥문->청동), 장래틀 교체
 - 2014. 6. 14. 성당 외벽 및 교육관 외벽 보수 및 도색, 예수 성심상 보수 등이 이루어졌으며 외관의 형태 등의 큰 변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내의 공간에서는 출입문, 마루, 장래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근대 절충양식으로 전면은 좌우대칭이나 좌측에 부속실이 덧붙여 있음
- 종탑부에 가벽을 설치하여 지붕부 박공면을 가려 수직 수평의 직선적인 방형입면을 기본으로 구성한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 측벽에 벽체를 지지하는 플랫 버틀레스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기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큰 변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문과 창호 등 작은 변형은 있었음
- 관리가 잘 이루어져 노후 상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다만 천장 속 등은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건립초기부터 취약)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인제읍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지역에서 중요 건축물로 위상을 가지고 있음. 인접한 인제향교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성당 건축물로서 종교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항구적인 활용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건립 이후 현재까지 철저한 건물관리가 진행되어 온바 향후에도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관리를 위한 건물변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성당 건축으로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함

다. 기타사항

- 천장 속 전기 배선 등 화재에 대비한 정비가 필요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또한 38선 이북에 건립되어 의미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현저한 변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향후 출입문, 창호, 마루, 천장등(상들리에), 장궤틀 등 보다 더 원형을 찾아 복원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

<OOO 문화재전문위원(2018.11.07)>

1) 개요

- ‘천주교 인제성당’은 1954년 6월 26일 춘천교구의 본당 성당으로 설립, 현재의 성당 뒤편 공터에 천막을 짓고 시작되었음. 그 뒤, 화재로 천막 성당이 전소되어 인근 미군부대 내 교우들의 지원을 받아 1954년 7월 26일 같은 장소에 킨셋 성당을 건립하였음.
- 현재의 성당 건물은 1955년 5월 23일 기공하여 다음해인 1956년 6월 7일 준공된 것으로 초대 신부인 임요한신부가 주축이 되어 미국의 원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토지는 당시 흥천 본당 신부인 ‘간도마’신부가 지원하여 구입하였고 설계는 ‘오 후베르또’신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성당 부지는 본래 한국전쟁 이전 북측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회당이 있었던 곳으로 전쟁 중 파괴된 공회당 건물의 기초(콘크리트) 위에 성당을 신축하였음.

- 성당이 준공된 이후, 다음해인 1957년에 수녀원과 관사(교리실 겸용)가 신축되었으나 수녀원은 1986년경에 '샬트로 바오로회 수녀원 분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으며, 관사는 이 당시 헐어내고 현재의 슬라브 건물을 신축하였음.
- 성당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외관 등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지 외부 마감재의 변형은 있었으나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음.
- 인제군은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당시 이국적 형태로 건립된 천주교 성당은 지역민들에게 일종의 랜드마크로서 큰 의미가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본당의 전체적으로 평면은 바실리카식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은 네이브, 아일 등으로 구획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입구쪽 상부에는 2층의 성가대석을 마련하였음.
- 본당의 좌측편으로 사제관을 종방향으로 길게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건립하였는데 이는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동시대 기타 성당건축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라 할 수 있음.
- 또한, 사제관과 본당 사이는 벽체로 구획되어 있는데 본래는 사제관 일부 공간을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벽체에 모두 6개소의 창문을 내었으나, 본당 내부로 음식 냄새 등이 유입되어 창문을 막아 현재 그 흔적만 남아 있음.
- 본래, 신자석과 제대 사이에는 장궤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공회 이후 미사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1970년경 제단의 위치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거됨.
- 정면 중앙부에 위치한 종탑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각 1개소씩의 현관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현관과 종탑은 본당의 구조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좌측 현관에 인접하여 별도의 계단실을 두어 2층 성가대석과 종탑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였음.
- 계단실은 반원형의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바닥은 원형으로 판단되는 인조석물갈기로 처리하였고, 계단 난간과 난간동자는 인조석 물씻기로 마감하였음.
- 종탑을 비롯한 정면 파사드의 디자인 및 세부 처리 수법 등이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종탑의 디자인 수법은 등록문화재인 '홍천 성당'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홍천 성당 역시 인제 성당을 설계한 '오 후베르또'신부가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음.
-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과거 공회당 건물의 기초(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려 축부(벽체)를 축조하였으며 지붕 가구는 목조트러스 지붕틀로 구성하고 그 위에 동판(가락잇기)을 깔아 마감 처리하였음. 또한, 박공지붕 양쪽면에는 각 3개소씩 도머창을 설치하였음.
- 개구부의 창호, 문은 대부분 새로운 재료로 교체하였으며, 외벽면은 본래 시멘트 몰탈 위에 뽕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위에 다시 본타일로 마감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사제관 뒤편으로 작은 규모의 창고가 증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어 보이나 실내 일부 바닥 마감재, 창틀(문), 외부 및 지붕마감재 등의 교체가 있었음. 적절한 보수공사 진행으로 인해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성당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관할지자체 및 성당측에서 역사적 산물로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여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극히 적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기 건축양식으로서 성당 및 관할지자체측의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성당측(천주교 신자) 및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주교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인제군 지역이 한국전쟁의 격전지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으로서 현존하는 근대문화유산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기존 사례와 차별화되는 인제성당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라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립 배경 및 그 내력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특히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기초를 이용한 사실 등은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최초부터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본당과 사제관 하나의 건물로 축조한 방법은 동시대 기타 성당건축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 인제성당만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새로 증축된 창고는 등록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인제성당」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검 토 사 항

6.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서울시 기념물 제7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1984.7.5.지정)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북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 * 서울시 기념물 제7호(1984. 7. 5. 지정)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 소유자 :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연 혁 : 1933년
 - 수량 및 면적 : 1동 / 88.6㎡(보호구역 386.4㎡)
 - 구조 : 목구조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000, 000, 000(2018.12.14.)
 -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가옥이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록이 충실히 고증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
 - 또한, 집의 좌향을 총독부 청사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은 것과 내부공간의 구성 등은 전통적인 주거방식과 차별되는 특징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용하던 주공간으로 진정성있게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별첨>

심우장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8. 12. 14(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000, 000, 000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만해 한용운 심우장(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1984.7.5. 지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현재 문화재 명칭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심우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정마을에 위치해 있다.
- 북정마을은 조선시대에 메주를 쑨던 마을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성곽마을에 대한 일제조사과정에서 북정마을의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빈곤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사회공헌사업 ‘따뜻한 북정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197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총회에서 역사유적지 보호와 현대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7년 워싱턴 ICOMOS총회에서는 역사마을 및 역사도시지역의 보존에 관한 현장이 공포되었으며, 1999년 멕시코 ICOMOS총회에서는 토속건조유산에 관한 현장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도시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시 장애물로 여겨졌던 한양도성 안팎의 허름한 주거지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현재 북정마을 일원은 기존의 재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차원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심우장은 한양도성 밖에 인접한 북정마을 안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역사유산으로 북정마을 북측에 위치해 있다.



그림5) 1972년 서울시 항공사진



그림6) 2018년 서울시항공사진

4. 연혁 유래 및 특징

- 1879.8.29. 출생의 만해 한용운은 1910년 당시 모순과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불교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개혁방안을 제시한 지침서인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을 백담사에서 탈고하였고, 이를 1913년에 발간함으로써 불교계에 일대 혁신운동을 일으켰다.
- 1914년 4월에는 방대한 고려대장경을 독과하고, <불교대전>을 간행하였으며, 1918년에는 본격적인 불교잡지인 <유심(惟心)>을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선생이 추구하던 불교의 대중화뿐 아니라 암울했던 식민지 무단통치 아래서 민족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 1919년 선생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범어사까지 다녀오는 등 동분서주하였고, 해인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백용성 선사를 민족대표로 서명하게 하였다. 선생은 불교계 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도 맡았다.
-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로부터 3천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받아, 북교학교인 중앙학림 학생인 정병현, 오택언, 전규현, 신상환 등에게 전달하여, 3월 1일 오후 2시 이후에 시내 일원에 배포토록하였다.
-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이종일이 가져온 선언서를 둘러보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하였다. 이때 선생은 “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니 금후 공동협심하여 조선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
- 선생은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 이후 피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 둘째, 사식을 취하지 말 것.
 -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 선생은 1921년 12월 21일 석방된 뒤에서 민족운동을 지속하면서,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상무운동으로 활동하였다.

- 1924년에는 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총독부에 정교의 분립을 주장하면서, 사찰령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중앙의 불교 행정기관을 각성시켜 불합리한 법규를 정정케하고, 대중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는데 전력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1927년 5월에는 좌우합작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의 창설이 추진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창립후에는 경성지회장으로 활동했다.
- 1930년 5월에는 김법린, 최범술, 김상호 등 20여명의 청년불교도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운동단체인 만당(卍黨)의 당수로 취임하기도 했다.
- 1931년에는 잡지 <불교>를 인수하여 속간하면서, 불교 대중화와 민중계몽을 위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을 구상, 당시 운영난에 빠져 있던 ‘불교’를 인수하였다.
- 1933년 55세가 되던 해 벽산스님이 기증한 지금의 성북동 터에 심우장이라는 택호의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 집 터는 만해 선생을 따르던 안국동 선학원의 벽산 김적음 스님께서 초당을 지으려고 송림 속에 사둔 대지 52평을 만해선생에게 내어드린 것이 발전하여 짓게되었다고 한다. 후에 후학 동지들이 협찬하여 현재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 터에 집의 향을 정할 때 총독부 청사를 바라보는 향이 싫다고 하여 동북방향으로 집의 향을 틀었다고 알려져 있다.
-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던 일송 김동삼이 1937년 3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을 때 유해를 심우장으로 모셔와 5일장을 치르기도 했다.
- 1944년 6월 29일 조국 광복을 앞두고 입적하였으며, 망우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심우장이라는 택호는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가지 수행 단계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심우장 서재에는 일차 유치웅의 서체로 쓴 현판이 남아있다.
- 1952년 12월 박봉근에게 심우장이 매각되었다.
매각 당시 기록에 따르면, 당시 건물이 2동이었고, 현 심우장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 외에 5평 규모의 1개동이 있었으며, 이 모습은 1962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 1962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2동의 건물이 존재했음이 확인되는데 1973년 5월 31일 ‘문단반세기’연재에 실린 사진에서는 본재 아래에 위치한 별동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974년 경향신문에서는 사랑채 앞에 뒷마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년 2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에서 현 관리사무소 위치에 관리사가 지어졌음이 확인된다. 이 관리사는 만해사상연구회에서 관리하며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1984년에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 지정 당시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기단부와 현재와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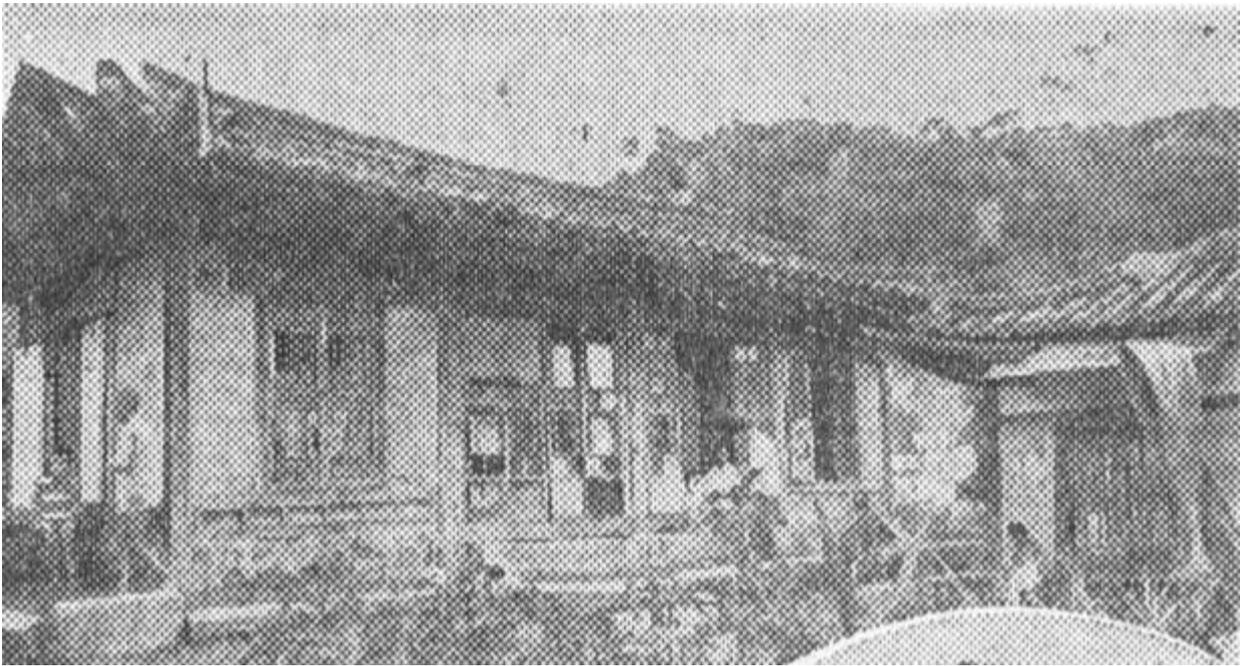


그림7) 동아일보, 1962년 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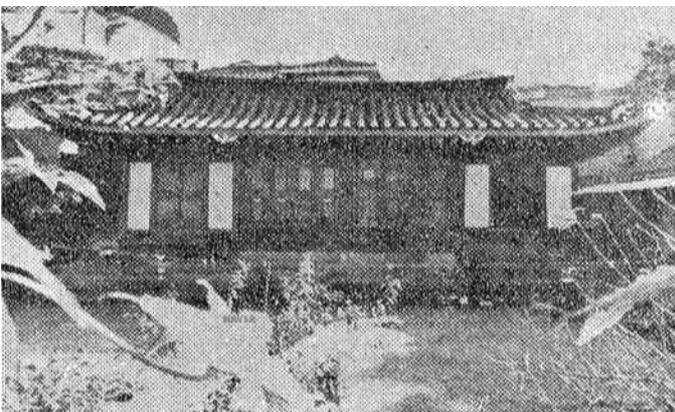


그림8) 동아일보, 1973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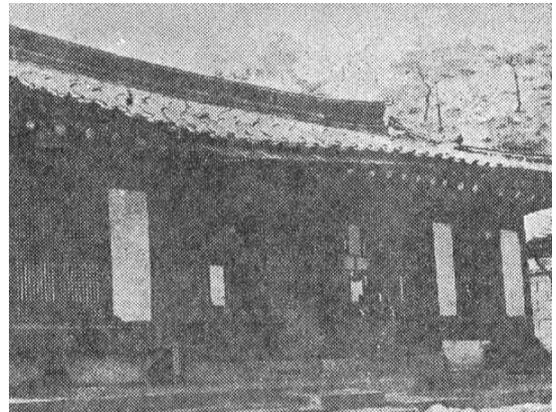


그림9) 경향신문, 1974년 6월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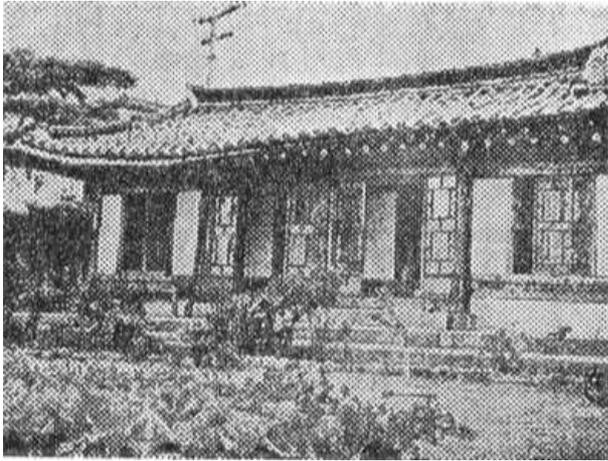


그림10) 동아일보, 1981년 10월 6일



그림11) 경향신문, 1983년 2월 28일



그림12) 경향신문, 1984년 7월 9일



그림13) 심우장, 2018.12.14

- 중앙의 대청방으로 중심으로 사랑채와 부엌_찬방이 위치한 공간구성은 근대기 도시한옥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공간구성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일반적인 도시한옥이나 전통 주거건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해선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은 맞지만, 그 의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심우장은 만해선생이 1933년에 짓고 11년간 거주하시면서 광복운동의 선구자 일송 김동삼 선생의 오일장을 치르는 등 민족지사들과 교류를 이어간 겨레의 공간으로 가치가 높다.
- 심우장은 전통 한옥과 달리 1930년대 도시적 삶과 전통한옥의 비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의지가 담긴 근대기 도시한옥이다.
- 1949년 2월 24일 연합신문에 따르면, 만해선생이 손수 목공과 토역을 하셨다고 한다.
- 현존하는 본채는 경전을 읽거나 글을 쓰고, 선정에 드는 공간과 지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경사진 땅의 남측 사면이 절토되고 북측에 석축을 만들어 대지로 조성되었다.
- 1962년의 심우장 사진에서 사라진 건물의 모습이 확인된다. 5평의 별동으로 된 건물은 기와지붕이 엷혀져 있어, 목구조 건물로 추정된다. 현 관리동 신축이 지층이 교란되지 않았다면, 별동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962년 사진과 현 모습을 비교하면 세부적으로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 1962년 사진에서는 사랑채 앞과 측면에 툇마루가 보이지 않는데, 현 심우장에서는 툇마루가 전면과 측면은 물론 후면까지 설치되어 있다.
 - 툇마루와 관련해서 1962년이후 1973년, 1974년, 1981년, 1983년 신문지상에 소개된 사진에서 변화가 확인되는데, 사랑채 앞과 측면의 툇마루는 원형이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이며, 1983년 사진에서도 측면 툇마루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정면 2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이 설치된 분합문의 창호 디자인도 현재와 다른 모습임이 확인된다.
 - 기단부는 비슷한 모습으로 확인되나 현 건물에서 기단부 아래에 설치된 석재는 1962년 당시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기단은 1984년 문화재 지정당시의 모습과도 다르다.

- 1949년 연합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에는 싸릿대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최초의 2개동중 1개동이 철거되고, 본체의 일부가 원 모습과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만해선생이 사용하던 주공간은 진정성 있게 보존되어 있다.
- 1933년 신축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은 없으나, 1949년의 신문기사와 1962년의 사진을 비롯하여 문화재지정 당시까지 남아있는 사진, 그리고 1972년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최대한 원형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만해 한용운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족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명징하게 규명되어 있고, 만해선생이 짓고 거주했던 심우장의 건축연혁에서 만해선생이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록이 충실이 고증되어 있으며, 본체의 원 모습이 잘 남아있다. 한편, 심우장 본체의 공간구성은 근대 도시한옥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고 있어 근대기 한옥으로서의 연구가치가 높다. 특히, 만해 선생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구성이라는 점에서 근대 주거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선생이 짓고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지사 및 문인들과 교류한 현장이자, 만해의 삶을 담고 있는 독특한 도시한옥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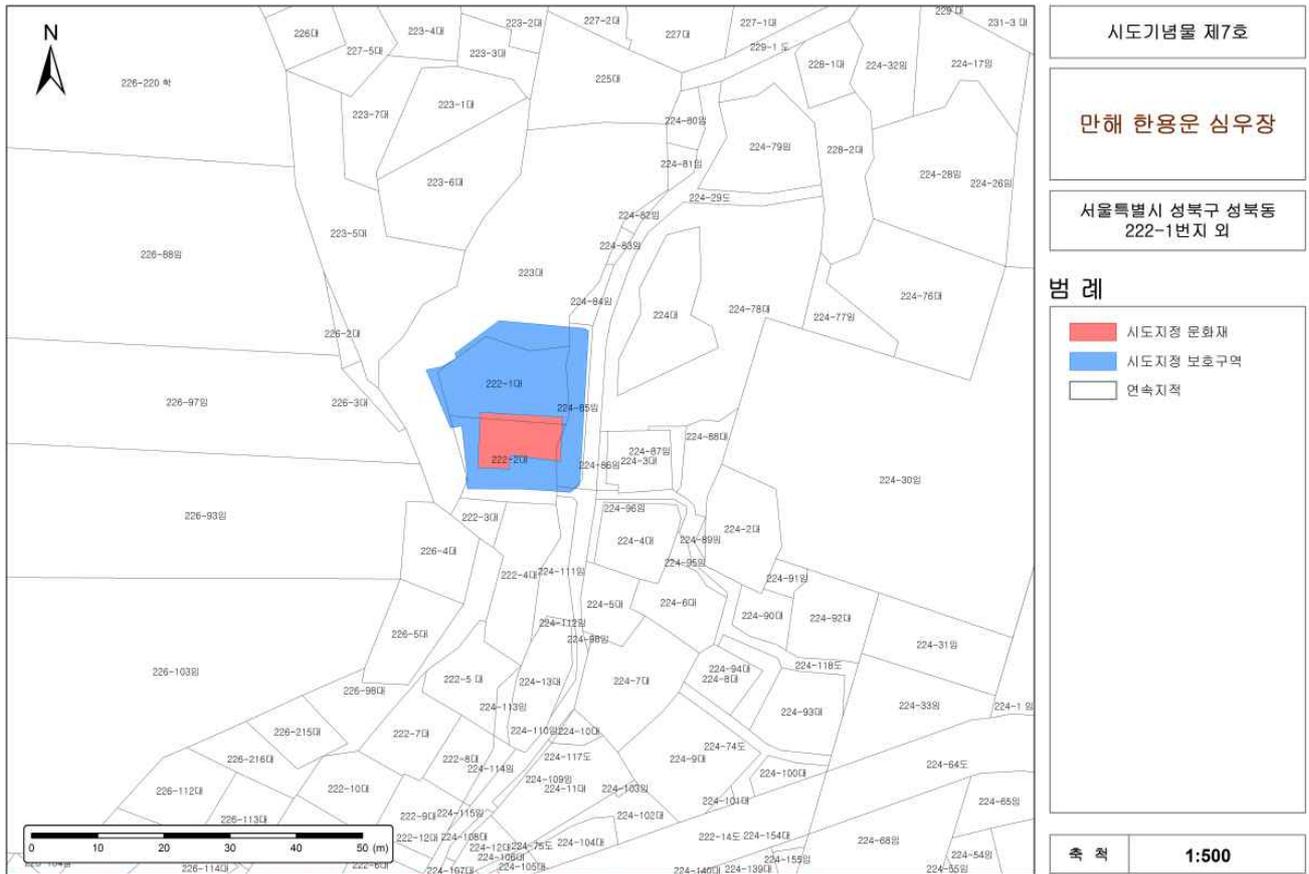


그림14) 연합신문, 1949.2.24



그림15) 심우장 정면, 2018.12.14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만해 한용운 심우장	1933	근대한옥 목구조	386.4㎡	전시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성북구 청장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청장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8.6㎡						
			1동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현재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관리되고 있으며,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지인 북정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사업 대신 성곽마을 살리기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심우장의 사적지정은 성곽마을의 진정성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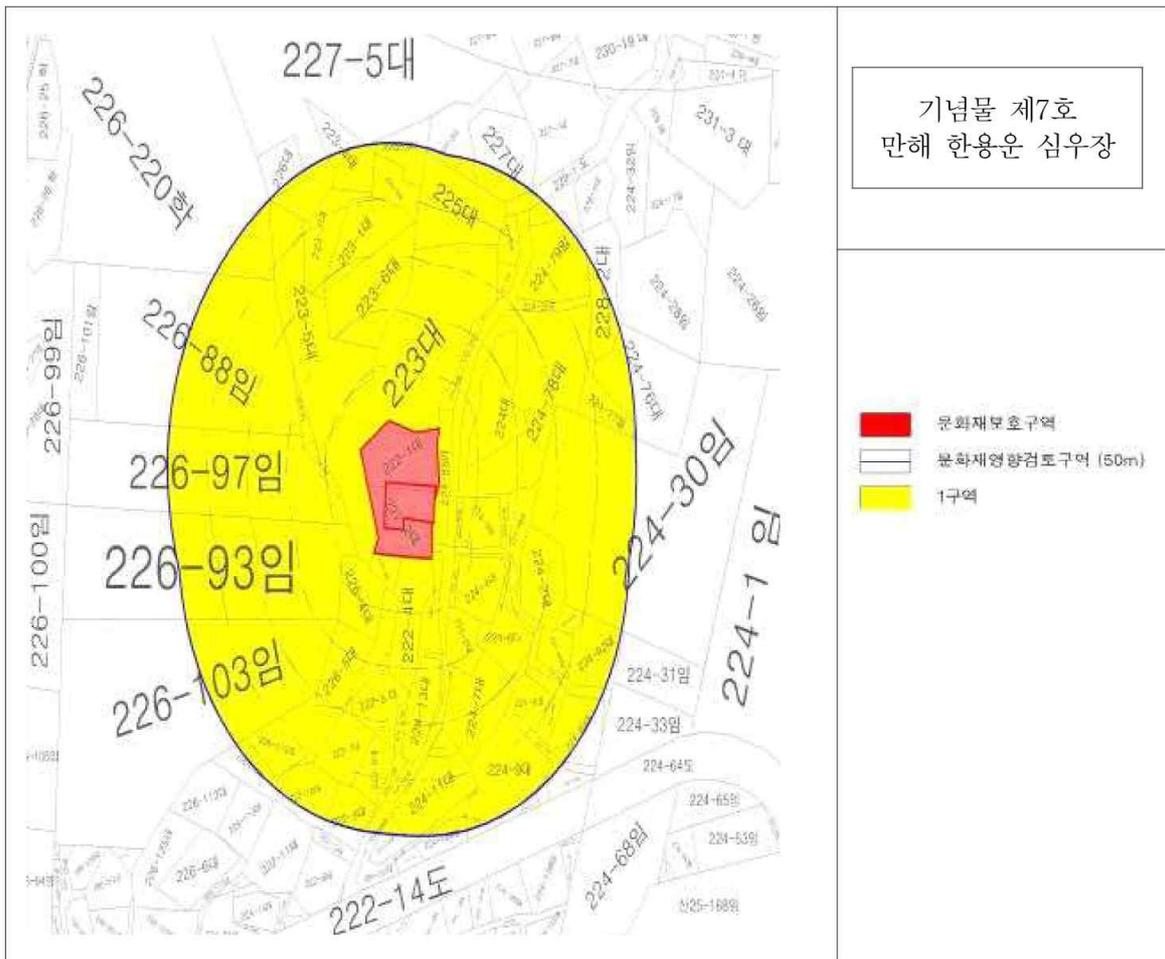
성곽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북정마을의 움직임은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심우장 주변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위해요소가 아니며, 20세기초 도성밖에 형성된 성곽마을에 위치한 심우장은 한양도성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좁은 경사지에 위치한 심우장의 입지특성을 감안할 때 대지경계성을 보호구역의 경계로 삼는 것이 심우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웃과 공존하며 민족의 미래를 고뇌했던 만해선생의 삶을 기리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 서울시 기념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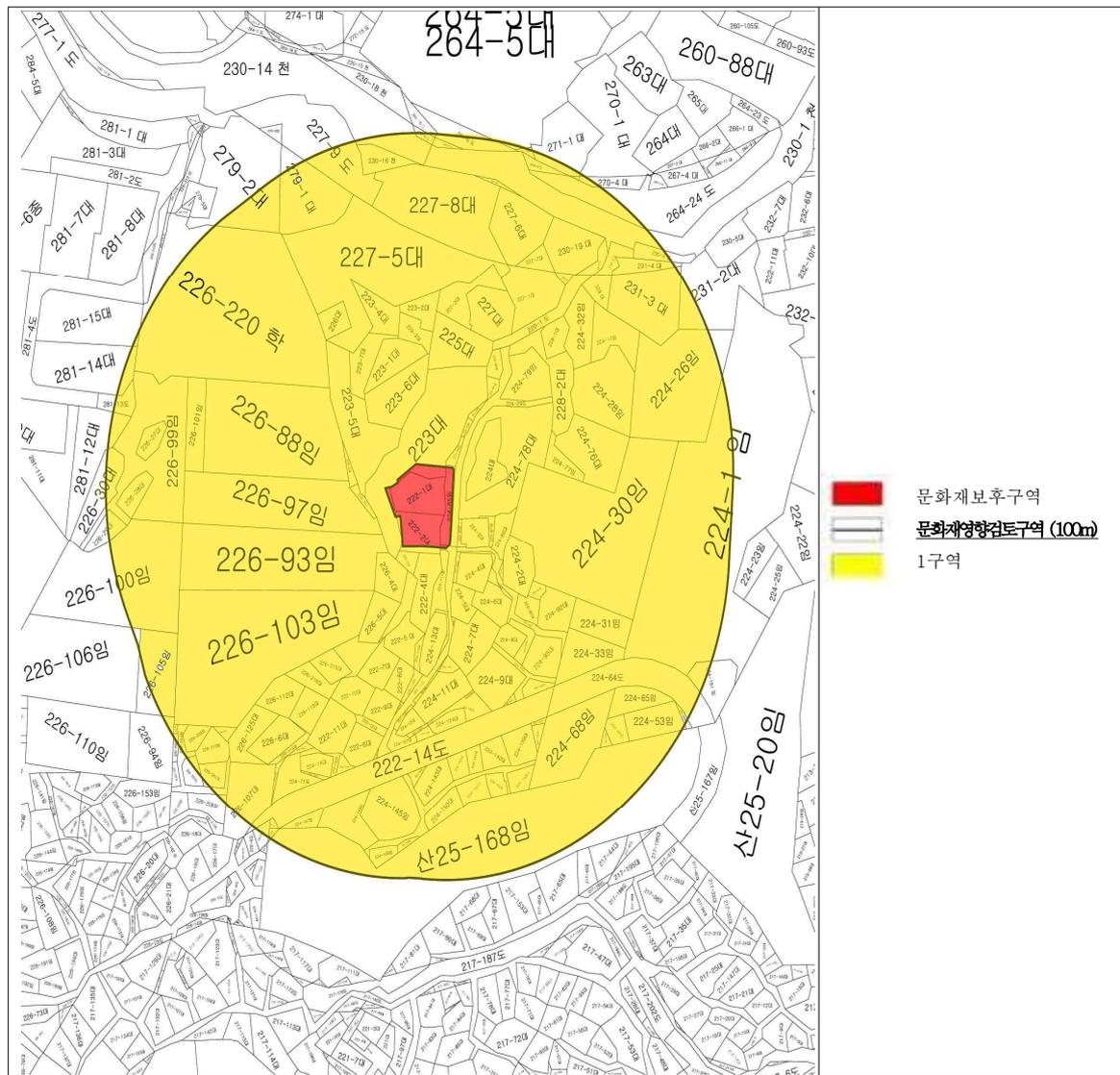
[기념물 제7호 만해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사적 승격 이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심우장내 보존 정비 이력 및 종합정비계획

시 기	내 용
1999	성북구 공공용지 협의취득
1999. 11 ~ 2000. 5	원형 복원 공사
2007. 12 ~ 2008. 7	담장 보수 공사
2016	조적조 관리동 철거(73.52㎡) 및 관리사무소(20.43㎡) 신축

기존 심우장 정비 내용

- 현재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심우장 유적이 양호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만해선생이 신축했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축 당시에 존재가 확인되는 부속채 추정 건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부속채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우장의 대지는 경사지에 성토하여 조성되었으므로, 부속채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심우장 본 건물의 독특한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과 만해선생의 생존시 부속채와 함께 가족들의 거주와 만해선생의 사용에 대한 고증 작업도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이 심우장의 활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9. 종합 의견

-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선생이 짓고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지사 및 문인들과 교류한 현장이자, 만해의 삶은 담고 있는 독특한 도시한옥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적 지정시 문화재 명칭은 현재와 같은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유지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기준도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문화재 지정 후 주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비계획 수립 시 신축 당시와 달라진 부분과 철거된 건물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m 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건물면적(연면적, 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202	1동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2-1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13.4 (13.4)							
				172							
2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72.9 (72.9)	1동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2-2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87							
				2.3 (2.3)							
3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87	1동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4-86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2.3 (2.3)							
				1동							
계				461							
				88.6 (88.6)							
				1동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성북동	222-1	대	202	13.4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2	성북동	222-2	대	172	72.9	성북구		성북구			
3	성북동	224-85	임	87	2.3	성북구		성북구			
계				461	88.6	성북구		성북구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시성북구	222-1	대	202	188.6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4호
2	서울시성북구	222-2	대	172	68.1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4호
3	서울시성북구	223	대	932	54	고창한외 7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로 153번길 6, 1408-1303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4단지)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4호
4	서울시성북구	224-85	임야	87	73.7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4호
5	서울시성북구	224-117	도로	141	2	심원섭외 4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응암로 28, 2동 502호(북가좌동, 연희한양아파트)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 16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054호
계				1,534	386.4					

7. 「곡성 태안사 해회당」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곡성 태안사 해회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곡성 태안사 해회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19.1.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 (2) 대상문화재 : 곡성 태안사 해회당 (신청명칭 : 동리산 태안사 해회당)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원달리 20) 태안사 경내
 - 용도 : 종교시설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 수량 및 면적 : 1동(2층), 연면적 382.39㎡ (1층 324.79㎡, 2층 57.6㎡)
 - 건립시기 : 연도미상(1917년 중수)
 - 구조 : 한식목조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9.1.11.)**

- 해회당은 태안사의 요사채 및 공양간 용도로 사용되는 □자형 평면의 건물로 1917년 중수 기록은 문헌에 의해 확인되나 창건년도, 중건 여부 등 그 이외의 건축연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 해회당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 취지인 근대적 시대상과 생활상을 구현하고 근대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전통한옥 목구조를 기본적 건축형식으로 전통적 형식과 기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등록문화재보다 지정문화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회당을 포함한 태안사 가람 전체가 문화재자료이고, 태안사가 다수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보다 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OOO 문화재위원(2019.1.11.)**

- 태안사 해회당은 근대기인 1917년에 초창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태안사의 다른 전각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드문 사찰건물임.
- 전체적으로 □자형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북측의 건물은 2층 한옥으로 보기 드문 구조를 하고 있음.
- 기능 역시 본래의 기능인 공양간과 요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내부 중정공간에서 북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를 가공하여 계단을 만든 것이며, 초창 당시의 건축적 원형 요소로 민속적인 측면이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단지 그동안 수차례의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희박하며, 특히 보수과정에서 각 건물간의 연결부, 전면부 후면의 수납공간에 대한 원형의 확인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회당이 가지는 2층 한옥의 건축적 특징이나 중정에서 북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충분한 고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사료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1.11.)**

- 정확한 건립 시기와 함께 원형의 모습 등 건축적 내력을 확인 할 수 없음.
- 주칸의 설정 및 주방배치, 치목 기법 등에서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립 당시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건축양식 등 전반적인 건축적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시대성 등을 살필 수 없어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조건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천년고찰로 알려진 태안사 경내에 다수의 보물과 시도유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 같은 맥락에서 보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태안사 해회당 (구) 태안사 해회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사찰-공양간, 요사채) (원) 종교시설(사찰)
3.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4.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연도미상(1917년 중수)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382.39㎡ (1층 324.79㎡, 2층 57.6㎡)
 -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9.01.11.) >

1) 개요

- 태안사(泰安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전라남도 곡성군 동리산(753m, 일명 봉두산) 서남쪽 자락 해발 300m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사지에서 전형적 산지가람을 형성
- 태안사는 통일신라 경덕왕 원년(742년)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며, 창건 당시 본래 사찰명이 태안사(大安寺)이었으나 조선시대 1702년(숙종 28년)부터 태안사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
-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중수, 중건을 거치며 고려, 조선 당시 대규모 사찰을 이루었으나,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대웅전을 비롯해 15채 건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를 입었으며 현존 건물들은 대부분 복원된 건물
- 현재 태안사는 해회당을 포함하여 가람 전체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1984년 2월 29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사찰내에 다수의 지정문화재를 보유
- 국가지정문화재로는 적인선사탑(보물 제273호, 1963년 1월 21일 지정), 광자대사탑(보물 제274호, 1963년 1월 1일 지정), 광자대사탑비(보물 제275호, 1963년 1월 1일 지정), 청동대바라(보물 956호, 1988년 6월 16일 지정), 동종(보물 1349호, 2002년 10월 19일 지정)를 보유

- 시도지정문화재로는 능파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1981년 10월 20일 지정), 일주문(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1981년 10월 20일 지정), 삼층석탑(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0호, 1988년 12월 21일 지정)을 보유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해회당은 태안사사적(泰安寺事蹟, 1941년)의 내용에 의해 대정5년(大正五年, 1917년) 중수 기록은 확인되나 창건연도, 상량문 등 그 이전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 해회당은 대웅전의 전면 마당 좌측에 위치하고 태안사의 요사채 및 공양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 작은 중정을 중심으로 건물이 외곽을 둘러싸며 전체적으로 口자형의 평면을 구성
- 口자형 평면중 대웅전 마당쪽에 면한 전면부 건물은 5량식 가구로 구성하고 나머지 세 방향 건물은 각각 3량식 가구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이 4방향으로 다양하게 결합된 형식
- 口자형 평면중 전면부 건물은 4×2칸의 넓은 통간(通間) 공간을 형성하고 대웅전쪽 전면 기둥은 방형기둥을 세운 다른 부분과 달리 원형기둥을 세웠으며 뒤쪽 마루 상부에는 다락을 형성
- 口자형 평면중 양측면에는 방들로 구성된 요사채를 배치하였으며, 후면부 건물은 특이하게 중층으로 구성하고 2층은 중정쪽에 외곽통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1층 중정과 연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정확한 창건연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문헌 기록에 의하면 1917년, 1924년 중수한 기록이 있으며, 문화재자료 지정 후 1997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보수한 도면, 시방서, 사진 등이 현존
- 현재 사찰의 요사채 및 공양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후면부 중층 건물 등 일부는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태안사가 많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이 넓게 설정되어 있고 해회당을 포함한 가람 전체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상태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태안사측에서 현재와 같이 사찰의 요사채 및 공양간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사찰 건축물의 등록 사례는 몇몇 경우가 있으나 태안사 해회당은 이들에 비해 근대적 시대성과 생활상의 표출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해회당은 태안사의 요사채 및 공양간 용도로 사용되는 □자형 평면의 건물로 1917년 중수 기록은 문헌에 의해 확인되나 창건년도, 중건 여부 등 그 이외의 건축연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
- 해회당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 취지인 근대적 시대상과 생활상을 구현하고 근대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전통한옥 목구조를 기본적 건축형식으로 전통적 형식과 기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등록문화재보다 지정문화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회당을 포함한 태안사 가람 전체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태안사가 다수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보다 지정문화재로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곡성 태안사 해회당

< 000문화재위원(2019.01.11.) >

1) 개요

- ‘동리산 태안사’는 곡성군 죽곡면의 동리산 중턱에 위치하며 태안사(大安寺)라고도 함
-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 한때 선문구산의 하나인 동리산파(桐裏山派)의 중심 사찰
- 742년(경덕왕 1) 신라 하허삼위신승(何許三位神僧)이 창건, 932년(태조 2) 윤다(允多)가 중창, 1683년(숙종 9) 정심(定心)이 중창, 한국전쟁 중에 많은 건물 소실
- 현재 대웅전, 천불보전, 만세루, 보제루, 해회당, 선원, 능파각, 일주문 등의 당우
- ‘해회당’은 1917년 중수하여 현재 요사채, 공양간으로 사용
- 청화대종사(靑華大宗師)는 법당이나 보제루가 아닌 해회당에서 직접 법어를 설하기도 했음
- 사찰의 불전이 대부분 소실된 한국전쟁 때에도 보존되어 현재까지 이용
- □자형 중층 건물로 일부는 2층 구조
- 추후 본래 기능인 요사채와 곡성군민과 태안사 탐방객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해회당은 1917년 초창된 이후 수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룸.
- 공간은 □자형 중층 건물로 정면과 좌우측면은 1층이고 후면은 2층 구조.
- 기능은 공양간 및 요사채이지만 한때 설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 정면은 동향으로 정면 7칸, 측면 3칸으로 공양간과 요사, 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외벌대와 이벌대의 기단위에 자연석 화강암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팔작지붕 형태의 측면지붕을 길게 한 구조. 후면 상부에 수납공간 형성.

- 좌측면은 남향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요사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공양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외별대와 이별대의 기단위에 자연석 화강암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지붕 마감.
- 우측면은 북측에 면해 있으며 정면 2칸의 요사와 정면 4칸, 측면 1칸의 요사,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2칸의 마루와 뒷마루로 되어 있으며 구조는 외별대의 기단위에 두리기둥으로 된 우주와 방형의 평주로 되어 있으며 상부는 기와지붕으로 마감.
- 배면은 북향으로 정면 5칸, 측면 1칸의 2층 요사로 되어 있으며 구조는 비교적 높은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다음 맞배지붕으로 마감
- 이들 건물은 중간중간에 연결공간이 있는데 현재는 이들을 막은 상태임.
- 내부는 ㄱ자형 중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배면 2층으로 가는 계단 설치.
- 공포는 없고 민도리식으로 마감.
- 특히 북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를 가공하여 제작하고 설치한 것으로 해회당의 원형 건축요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17년에 중수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한 것으로 보임.(1924년 중수, 1997년 수리)
- 본래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이고 면적은 329.67㎡. 구조는 원형의 배흘림 기둥에 홀처마의 맞배집이었다고 함.
- 이후 전면의 ㄷ자형 건물과 후면의 -자형 건물이 ㄱ자형 건물로 됨.
- 기능에 있어서 요사채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변화 있음.
- 각각의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부위가 있는데 이들 연결부위는 본래 개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폐쇄되어 있음
- 부재는 많은 부분이 교체된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의 보수로 인하여 건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내부의 북측 2층 요사에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를 가공한 것으로 본래 부재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동리산 태안사)의 관계자는 문화재에 대한 식견과 보존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해회당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추후 이를 활용하여 본래의 기능인 요사채와 공양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확대하여 곡성군민과 태안사 탐방객을 위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동리산 태안사의 관계자는 해회당을 현재와 같이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공양간과 요사로 사용하고자 함.
- 아울러 곡성군민과 태안사 탐방객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보존관리계획과 활용계획은 건물의 기능과 적절해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해회당의 본래 기능과 태안사에서 위치를 고려한다면 본래의 기능인 요사와 공양간으로 활용하면서 해회당의 문화재적,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요사와 공양간외에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회당과 유사한 목조 한옥이나 근대한옥으로는 종교시설로 ‘고양 행주성당(등록 문화재 제455호)’, ‘통영 황리공소(등록문화재 제734호)’, ‘용인 고초골 공소(등록문화재 제708호)’ 등이 있으며 주거건축으로는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등록문화재 제678호)’, ‘광주 장덕동 근대한옥(등록문화재 제146호)’, ‘태안 동문회 근대 한옥(등록 문화재 제704호)’, ‘포항 오덕리 근대 한옥(등록문화재 제373호)’ 등이 있음.
- 이들 한옥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기의 한옥으로서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태안사의 해회당 역시 한옥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보수과정에서 원형에 관한 부분을 유추하기가 어렵고 근대한옥으로서의 특징을 찾기가 쉽지 않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태안사 해회당은 근대기인 1917년에 초창되었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태안사의 다른 전각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드문 사찰건물.
- 전체적으로 ㅁ자형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북측의 건물은 2층 한옥으로 보기 드문 구조를 하고 있음.
- 기능 역시 본래의 기능인 공양간과 요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내부 중정공간에서 북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통나무를 가공하여 계단을 만든 것임.
- 초창 당시의 건축적 원형 요소로 민속적인 측면이나 건축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이나 기능의 보존 및 관리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단지 그동안 수차례의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가 희박한 편임.
- 특히, 보수과정에서 각 건물간의 연결부, 전면부 후면의 수납공간에 대한 원형의 확인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회당이 가지는 2층 한옥의 건축적 특징이나 중정에서 북측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충분한 고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9.1.11.) >

1) 개요

- ‘태안사(泰安寺)’는 신라시대부터 법맥을 이어온 고찰(古刹)로 곡성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유자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찰은 임진왜란 당시 많은 피해를 입은 후, 중건(重建) 및 중수(重修) 등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회복 되었으나, 한국전쟁을 전·후 크고 작은 사건 등으로 인해 다수의 불전(佛殿)이 소실됨.
- ‘해회당(海會堂)’은 당시 화를 면한 불전 중의 하나로 오늘날 사찰의 요사채 및 공양간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해회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상량문 등의 기록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음. 다만, 소유자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태안사지(泰安寺誌)’에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한 번의 중수(重修)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현재의 사찰 면모는 1960년대 이후 형성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 건축 양식 주요 특징

- 사찰의 전체적인 배치는 남북의 중심축상에 대웅전을 중심으로 북쪽의 ‘염화실(주지실)’, 남쪽으로는 ‘보제루’와 ‘일주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회당은 대웅전의 서쪽편에 자리 잡고 있음.
- 해회당의 평면은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口’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면과 좌·우측면은 1층, 배면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외관 형태는 경상북도 지역의 고택(상류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구성으로 사찰의 요사채(공양간)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배면 측을 2층으로 구성한 것은 상술한 ‘口’자형의 고택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사찰측에서도 이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건축 의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정면 건물은 정면6칸×측면2칸 규모로 가운데 4칸은 방, 좌측 퇴칸은 부엌(입식부엌), 우측 퇴칸은 마루로 구성. 4칸의 방 뒤편에는 반칸 규모의 뒷마루를 달아내어 우측 퇴칸의 마루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연결하였음. 부엌의 주칸은 다른 칸에 비해 좀 더 넓게 구획되어 있어 후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좌·우의 익랑은 정면3칸×측면1칸의 규모로 서로 대칭되게 위치하고 있지만, 상호 기둥 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시기에 건축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또한, 좌익랑 전면에는 우익랑과 달리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음.
- 2층으로 구성한 배면 건물은 1,2층 모두 정면5칸×측면1칸으로 구성하였으며, 1층의 좌측 2번째 칸은 소위, 통래칸으로 하여 외벽쪽에 출입문으로 보이는 판문을 설치하였음. 또한 좌측 3번째 칸의 내측 벽면에 면하여 자연형태의 통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2층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하였음.
- 현재 해회당의 출입문은 좌익랑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래는 배면 건물 1층의 통래칸에

설치된 판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각 실의 기능 역시도 최초 건립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형의 상태는 알 수 없음.

- 가구(架構)는 전체적으로 소위, 민도리집으로 짜여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기둥 상부에 익공으로 장식 처리하였고 일부 기둥은 보 없이 직접 상부의 도리를 받고 있는 등 통일성이 없이 처리되어 있음. 따라서 각 채의 건물이 건립 시기를 달리하거나, 또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사찰측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부재들은 1998년 보수공사 과정에서 교체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기둥 및 보 등 일부 용재(用材)의 규격이 건물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 건립 당시 다른 건물의 부재를 뜯어와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고증자료의 한계로 최초 건립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는 없어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1998년 보수 공사를 통해 기단 강회다짐, 기둥 교체 및 동바리 이음, 번와, 지붕 강회다짐, 벽체 미장, 수장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공양간 등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배면 건물의 2층 및 나무 계단 등은 한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태안사 사찰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경내에 있는 보물 및 시도유형문화재로 인해 그 일대가 국가 및 시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압력 등으로 인한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은 적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사찰 측의 적극적인 보존, 활용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찰 시설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사찰 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서울 흥천사 대방(등록문화재 제583호)’등이 있으나, 이와 비교할 때, 정확한 건립 시기와 함께 원형의 모습 등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근대문화유산적 측면에서도 상대적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정확한 건립 시기와 함께 원형의 모습 등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음.
- 주칸의 설정 및 주망배치, 치목 기법 등에서 완성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립 당시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건축양식 등 전반적인 건축적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시대성 등을 살필 수 없어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조건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천년고찰로 알려진 태안사 경내에 다수의 보물과 시도유형문화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 같은 맥락에서 보존,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8.12.2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1점	20.1×32.3cm	면 (섬유)	필사	1931년 (12월13일)	국립중앙 박물관장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2점	편지지 24.1×16.5cm, 봉투 13.0×7.8cm	종이	필사	1931년 (12월24일)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1점	14.4×21.2cm	종이	필사	1931년 (12월28일)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
 - A등급 34건(‘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포함), B등급 104건, C등급 1,215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21.)

(3) 검토사항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
 - 이봉창 관련 유물 3건을 우선 등록검토대상 목록에 포함함. 단,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봉창 의사 선서문(1건)’과 ‘이봉창 의사 관련 유물(2건)’의 명칭으로 각각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함.(가지번호 사용)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2.21.)

- (선서문) 의거의 실행 이유와 의지를 보여주는 항일투쟁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임. 그런점에서 선언서만을 단독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친필 편지와 봉투, 의거자금 송금증서)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에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가 어떻게 실행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임.

○ 000 00대학교 교수(2018.12.21.)

- 이봉창의사의 일왕저격의거는 안중근과 윤봉길에 비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상태도 양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서신>과 <김구가 이봉창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이는 <이봉창의사 선서문>과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000 00대학교 교수(2018.12.21.)

- (선서문) 한민애국단의 의열활동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자료로 이봉창 의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선서문은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 (친필 편지와 봉투, 의거자금 송금증서) 이봉창 의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유물별 개별 등록 예고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봉창 의사 선서문 /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의거자금 송금증서
2.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3. 소유자 : 국립중앙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12.21.)>

[이봉창 의사 선서문]

1) 현 상

- 대체로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李奉昌, 1900.8.10.~1932.10.10.) 의사가 일왕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백범이 1931년 12월 13일에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安恭根)의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 있다.

이봉창 의사는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기노시타 쇼조(木下昌藏)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일본 만주 등에서 거주하면서 향락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겪으면서 민족성을 찾고, 백범을 만나 의거를 실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선언문을 공포한 다음해인 1932년 1월 8일에 관병식(觀兵式)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죽이기 위해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성공을 못하였다. 바로 체포되어 1932년 9월 30일에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의사의 유해는 1946년에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었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 선언서는 <사진1-1>에서 보듯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
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
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십삼년(1931)십이월십삼일 선서인
한인애국단앞 이봉창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은 1926년 12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인 백범 김구(金九)가 한중우호 증진과 일본 수뇌암살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제에 대한 파괴와 암살을 주도한 단체이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듬해에는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다. 윤봉길 의사도 거사 전에 선서문을 남겼는데, <사진1-2>와 같이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것인데 비해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선서문을 쓴 날짜와 인명은 먹색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날짜와 인명은 이봉창 의사가 쓴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에 써놓은 나머지 선언문은 누가 언제 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p><사진1-1>이봉창 의사 선서문</p>	<p><사진1-2>윤봉길 의사 선서문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568-1호(1972.8.16)</p>

3) 기타(참고자료)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11.
한시준, “李奉昌 義士의 日王狙擊義舉”,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6.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3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의거의 실행 이유와 의지를 보여주는 항일투쟁 유물의 하나가 된다. 실제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항일투쟁은 이듬해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어지게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투쟁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선언서만을 단독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봉창 의거 관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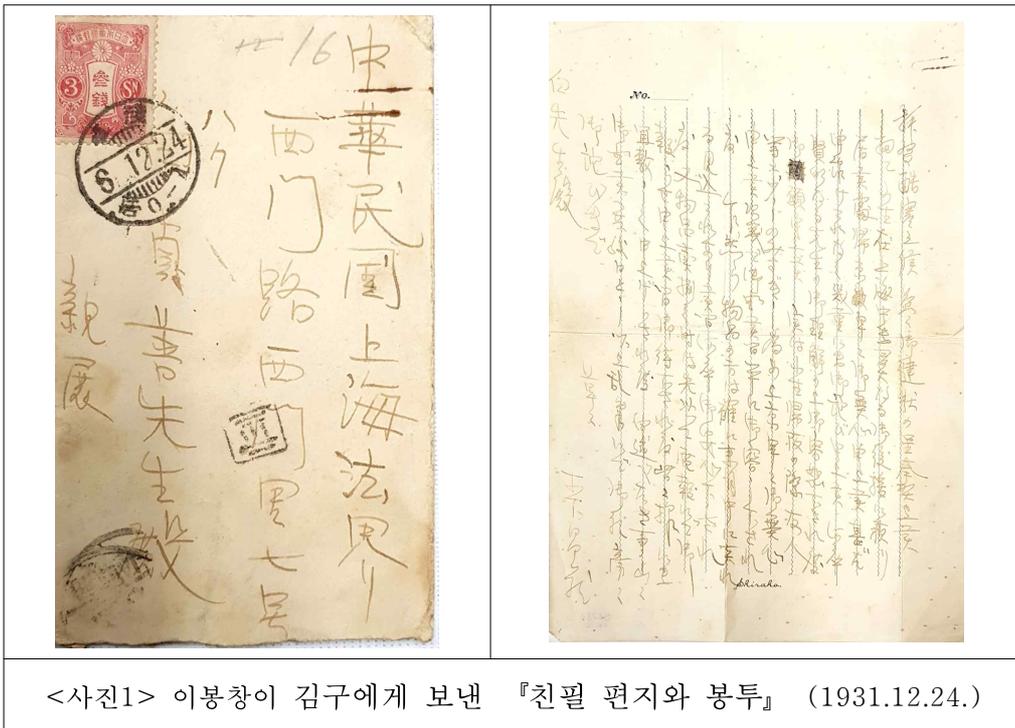
1) 현 상

- 『친필편지와 봉투』는 잉크색이 바랬으나 원형은 온전함.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① 『친필 편지와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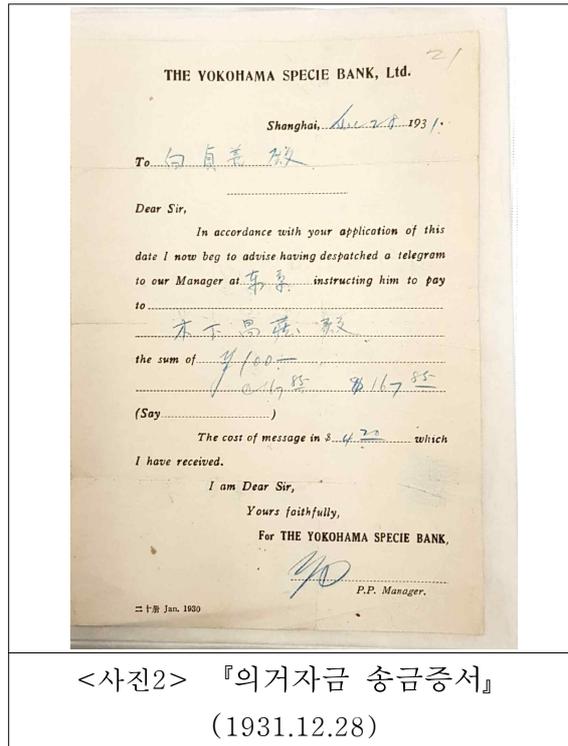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봉창의 유물은 선서문 외에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 그리고 김구가 이봉창에게 송금한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2종이 있다.
-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 (<사진1>)는 봉투에 1931년 12월 24일의 소인(消印)이 찍힌 편지로 이봉창(기노시타 쇼죠, 木下昌藏)이 중국 상해의 김구(백정선, 白貞善)에게 보낸 일한문의 편지이다. 박물관 측에서는 편지봉투 뒷면에 이봉창이 쓴 일본이름의 영문 이니셜인 K.S를 따라 「K.S서간문」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백선생(白先生)”께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의거를 위해 도쿄로 간 이봉창이 김구에게 (의거자금)을 부탁하면서, 다음 달에는 거사가 확실하다며 확정되는 대로 전보로 알려겠다는 내용이다.
- 편지에서는 거사를 물품으로 표현하였는데, 곧 “물품은 확실히 다음 달 중에 팔리니까 아무쪼록 안심하십시오. 또한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전보로 알려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物品の方は 確に 來月中に 賣れる 見込これあり 候間 何卒御安心下され度. 又物品賣捌く時は 先以って 電報にて 御報らせ申上候間 御待下され度.)”라고 써 놓았다. 편지에서 일본에서의 의거를 “물품”으로 표현한 사례는 다른 기록에도 보인다. 아마 “물품이 팔린다.(물품을 판다.)”라는 용어는 두 사람이 의거를 실행하는 대체 용어로 약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이봉창의 의거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사진1>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 (1931.12.24.)

② 『의거자금 송금증서』

- 『의거자금 송금증서』 (<사진2>)는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백정선)가 상해에서 이봉창의 의거자금을 일본으로 보낸 송금증서이다. 박물관 측에서는 「영자지불통지서」(英字支拂通知書)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내용은 김구가 송금한 100엔을 일본의 "THE YOKOHAMA SPECIE BANK, Ltd"에서 도쿄의 이봉창(木下昌藏)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송금 증명서이다. 이 송금증서는 앞의 이봉창이 의거비용을 요청한 편지에 대한 답신인 셈이다. 『의거자금 송금증서』도 앞의 편지와 함께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하겠다.



<사진2> 『의거자금 송금증서』
(1931.12.28)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와 김구가 이봉창에게 송금한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2종은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에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가 어떻게 실행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아울러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문서를 『이봉창의사 유물』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OOO OO대학교 교수(2018.12.21.)>

[이봉창의사 선서문]

1) 현상

- 선서문의 좌측면이 약간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섬유에 국한문으로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십삼년 십이월 십삼일 선서인 이봉창 한인애국단 앞”이라고 적혀 있음. 일본 국왕을 폭탄으로 암살하려고 한 거사(1932년 1월 8일) 직전에 맹세한 선서문임. 이 선서문은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과 거의 같으나, 의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즉 일본 국왕을 제거하고자 한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에는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라고 하였고, 일본군 지휘관을 주대상으로 삼은 윤봉길 의사는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라고 하였음.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자필인 것으로 보이나,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먹의 상태나 글씨로 미루어 한인애국단에서 작성해 놓은 선서문에 일자와 성명만을 적어넣었던 것 같음.

3) 문헌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이봉창 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이봉창의사장학회 편,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 김도형, 「이봉창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그 평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윤봉길 의사 선서문」과 함께 한인애국단의 의열활동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자료임. 이봉창, 윤봉길로 대표되는 한인애국단의 의열활동은 일본이 한국침략에 이어 중국침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사였음. 특히 이봉창 의거는 일본 국왕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일제가 ‘대역사건’이라 해석하는 대사건임. 따라서 이봉창 의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선서문은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미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관련 일괄 자료와 함께 보물 지정이 이루어져 있음.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이봉창 의거 관련 유물]

1) 현상

- 편지는 Shiraha(しらは[白羽]?) 편지용지에 세로 반흘림체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잉크색은 바랬음. 사각봉투에 접어서 동경에서 발송하였음. 1931년 12월 24일자 소인이 보임. 송금증서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①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의 편지는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보낸 일본어 서신으로 청색 잉크로 작성되었음. 일본 동경에 도착한 이봉창이 상해의 백정선에게 도착과 물품입수가 가능하다는 현지상황을 알리고 있음.

봉투의 소인은 1931년 12월 24일자이고, 뒷면에 동경에서 K.S.(기노시다[木下])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고, 수신한 김구의 필적으로 “봉창제일신(奉昌第一信)”이라고 적혀 있음. 이 편지는 이봉창이 동경에서의 의거를 ‘물품’으로 표현하였으며, 추가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알려줌. 김구에게 의거가 1932년 1월에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재정 지원을 부탁한 이 편지로, 이봉창 의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K. S. 서간문’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봉창) 친필 편지와 봉투’로 수정해야 할 것임.

② 의거자금 송금증서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백정선이 기노시다 쇼조(木下昌藏)에게 1931년 12월 28일 100엔을 요코하마 스페시뱅크[橫濱正金銀行, Yokohama Shōkin Ginkō] 상해 지점을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내용임. 즉 이봉창의 편지를 받은 김구가 횡빈정금은행 상해지점을 통하여 거사자금 100엔을 송금한 영수증임. 이봉창은 1932년 1월 4일 송금액을 인출하였으며, 1월 8일 일본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함. 이 자료 또한 이봉창 의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영자지불통지서’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봉창) 의거자금 송금증서’로 수정해야 할 것임.

3) 문헌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이봉창 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이봉창의사장학회 편,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 김도형, 「이봉창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그 평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 의사가 김구에게 보낸 편지인 ‘이봉창 친필편지와 봉투’와, 김구가 이봉창에게 거사자금을 송금한 ‘이봉창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봉창 의사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봉창 의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OOO OO대학교 교수(2018.12.21.)>

1) 현상

- 훼손된 곳 없이 원본 상태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의사가 일왕을 처단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상해에서 “나는 (중략)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어 敵國의 首魁를 屠戮하기로 盟誓하나이다”라는 선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한인애국단에 제출한 것임. 선서문은 누군가가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봉창의사는 미리 작성된 선서문에

있는 宣誓人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 생각됨. 이봉창의사는 일본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1931년 1월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를 만남. 이봉창의사의 일왕을 처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구는 자금과 폭탄을 준비하는 한편, 이봉창의사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홍구(虹口)에 가서 생활하도록 함. 자금과 폭탄이 마련되자 김구는 이봉창을 불렀고, 이봉창은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1932년 12월 13일 김구를 찾아옴. 이때 김구는 이봉창을 안공근의 집으로 데려가 한인애국단에 입단시키고, 선서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음.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김구가 해방 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1949년 김구가 서거한 후, 김구를 경제적으로 도왔던 김덕은이란 인물의 손에 들어감.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덕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이봉창의사 선서문> 이외에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서신>과 <김구가 이봉창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이는 <이봉창의사 선서문>과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문헌자료

- 이봉창의사장학회,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 출판부, 2002
-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 2006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4) 기 타

- 이봉창의사의 일왕저격의거는 안중근의사의 이등박문 처단의거와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와 더불어 한국의 3대 의열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안중근과 윤봉길에 비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봉창의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 <이봉창의사 선서문>이라고 할 수 있음. 상태도 양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9. 「관동의병대장기」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관동의병대장기」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18. 7. 2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동의병대장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관동의병대장기	1점	37×277cm	견(무늬 없는 명주)	(연도 미상)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 추진경과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동산(動産) 분야 조사대상 15건 선정(1차 조사대상 8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12.)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2.12.)

- “關東義兵大將” 깃발은 유인석이 의병 활동하던 1896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關東義兵”이 아니라 “湖左義兵”이라 칭했음. 깃발의 바탕 재료인 흰색 비단은 기계로 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에서 기계 생산된 비단이 유통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깃발의 제작연도로 제시한 1896년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유물의 오염상태나 훼손된 상태 역시 진정성이 부족하여 문화재적 가치는 없음.

○ 00대학교 000 강사(2018.12.12.)

- 유인석이 영월에서 의병대장에 취임할 당시(1896년 2월 7일) ‘호좌의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 깃발에 쓰여 있는 ‘관동의병대장’이라는 문구는 당시 상황이나 지칭 방식과 상응하지 않음.
- 현재로서는 깃발의 연원이나 제작 상황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 깃발이 작고한 기증자와 소장 기관의 설명처럼 1896년에 제작되었고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용된 유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나 주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유물 일부가 손상·박락·임의 보수된 흔적이 있고 나일론 끈 등 연대와 맞지 않는 구성물이 있어 등록문화재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오영섭 00대학교 연구교수(2018.12.12.)

- 1) 1896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며, 2) 유인석 의병장을 ‘관동의병대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석 의병장이 사용하던 깃발이라는 ‘관동의병대장기’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관동의병대장기」 조사보고서

1. 명 칭 : 관동의병대장기
2.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3. 소유자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12.12.)>

1) 현상

- 한말 의병장 유인석이 의병활동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깃발. 흰색 비단 바탕에 “**關東義兵大將**”이라는 목서가 있음. 흰색 비단 바탕은 오염되어 있으며 곳곳에 지름 1cm 내외 크기의 불규칙한 구멍이 있음. 유인석의 후손이 관리하다가 1981년에 강원대학교에 기증하였고 현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1896년 의병활동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깃발임. 유인석은 춘천 남면 가정리에서 태어났으며, 구한말 충청북도 제천을 중심으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던 의병 조직인 湖左義兵陣의 의병장으로 추대됨. 호좌의병진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1896년 초에 조직되었으며 강원도 일부와 충청북도 지역을 장악하며 친일 관료들을 척결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벌였으나 1896년 5월 관군과 일본군의 탄압으로 해산됨. ([출처] 「제천 의병사적지를 가다, 한말 호좌의병 활동의 중심지」, 국가보훈처)
- ‘관동의병대장’ 깃발은 너비(폭) 약 37.5cm, 길이 280cm 크기의 흰색 비단에 “**關東義兵大將**”(“關東”이 아니라 “**關東**”으로 표기)이라는 목서가 해서체로 쓰여 있음. 유물의 상단과 하단에 반원형의 긴 나무로 천을 고정해 족자형식으로 걸도록 제작되어 있음. (도판 1, 2 참조)
- 유물의 상태를 보면, “**關東義兵大將**”이라는 목서는 선명하지만 그 주변은 오염이 심하며 곳곳에 지름 1cm 내외 크기의 구멍이 나 있음. 오염이나 구멍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길 수 있으나 다소 어색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깃발의 바탕 재료인 흰색 비단은 폭 37.5cm, 길이 280cm 크기인데, 1896년 당시에 이러한 크기의 비단 생산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조사자의 판단으로는 날실과 씨실이 매우 고르게 직조되어 있어 수작업으로 생산되었다기보다 기계 생산된 직물로 여겨짐. 참고로, 국내에서 기계 생산된 비단은 1920년대 이후에 유통되었음.







3)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關東義兵大將” 깃발은 유인석이 의병 활동하던 1896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關東義兵”이 아니라 “湖左義兵”이라 칭했음. 깃발의 바탕 재료인 흰색 비단은 기계로 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에서 기계 생산된 비단이 유통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깃발의 제작연도로 제시한 1896년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유물의 오염상태나 훼손된 상태 역시 진정성이 부족하여 문화재적 가치는 없음.

4) 종합의견

- 1896년 유인석이 의병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關東義兵”이 아니라 ‘湖左義兵’이라 칭했으며 유물의 제작연도 역시 1896년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문화재적 가치가 없음.

<OO대학교 OOO 강사(2018.12.12.)>

1) 현상

- 명주 한 폭을 길게 잘라 만든 깃발로 상태가 조악하고 글자에 덧칠한 흔적과 얼룩이 남아 있으며 구멍이 찢리는 등 부분적으로 손상됨. 깃발과 깃발 아래, 위에 붙인 고정용 막대, 상단의 나일론 끈 등 전반적인 재질을 고려했을 때 1890년대에 제작·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내용 및 특징

- 깃발 앞면에 먹으로 쓴 ‘關東義兵大將’이라는 글씨가 있음. 각각의 글씨 위에 부분적으로 덧칠한 흔적이 얼룩처럼 남아 있으며 일부 구멍이 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음. 전체적으로 오염됨. 깃발의 길이는 약 277cm이며 기계로 직조한 명주(37cm 폭)를 길이 방향으로 잘라 제작하여 깃발 양옆에 식서(飾緒: 옷감 가장자리의 올이 풀리지 않는 부분)가 그대로 남아 있음.
- 깃발 상단과 하단에 각각 단면이 반원형인 나무막대(이후 막대로 표기)를 대어 접착제로 부착함. 나무를 댄 깃발 상단 직물은 자른 면이 불규칙함. 깃발 하단의 직물은 1.3cm 폭으로 접어 올려 약 3mm 간격으로 홈질했으며 이를 막대에 접착했으나 접착 면 일부가 떨어져 있음. 상단 막대 가운데에 금속 재질의 고리 2개가 12cm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흰색과 검은색을 교차 직조한 나일론 재질의 끈을 묶어 늘어뜨림. 왼쪽 고리에 나일론 끈이 녹아 붙어 오염됨. 깃발 전체에 검은색 오염과 얼룩이 남아 있으며 다수의 구멍과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유물 세부 치수 및 특징(이 도식화는 현상 기록을 위한 것이므로 유물의 실제 형태 및 비율과 일치하지 않음)



<그림 2> 깃발 위쪽 세부



<그림 3> 깃발 위쪽 접착 부위와 끈 세부



<그림 4> 상단 나무 접착 부위



<그림 5> 상단 금속제 고리와 끈 연결 부위(나일론끈이 녹아 붙음)



<그림 6> 깃발 상단 막대 접합부 및 손상부위



<그림 7> 깃발 하단 뒷면 나무 접착면



<그림 8> 깃발 하단 뒷면 바느질 세부



<그림 9> 깃발 하단 뒷면 박락 부위 세부



<그림 10> 오염 및 손상 부위①



<그림 11> 오염 및 손상 부위②



<그림 12> 오염 및 손상 부위③



<그림 13> 오염 및 손상부위④

3) 기타(소장경위 등)

- 의병장 유인석의 후손이 관리·보관하다가 1980년대에 등록 신청 기관(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 관련 유물과 함께 일괄 기증함. 기증 당사자인 유인석의 후손이 사망하여 깃발의 입수 과정, 연원, 제작자 및 제작 상황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음. 동일 유형 등록문화재의 경우 사용자 혹은 제작자, 제작 연원이 밝혀진 것과 달리 의병대장기의 출처나 제작 경위를 추론할 만한 연계 자료가 없고 유인석이 1894년 의병장 활동 당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등록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함.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유인석이 영월에서 의병대장에 취임할 당시(1896년 2월 7일) ‘호좌의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 깃발에 쓰여 있는 ‘관동의병대장’이라는 문구는 당시 상황이나 지칭 방식과 상응하지 않음.
- 현재로서는 깃발의 연원이나 제작 상황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 깃발이 작고한 기증자와 소장 기관의 설명처럼 1896년에 제작되었고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용된 유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나 주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
- 유물 일부가 손상·박락·임의 보수된 흔적이 있고 나일론 끈 등 연대와 맞지 않는 구성물이 있어 등록문화재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OOO OO대학교 연구교수(2018.12.12.)>

1) 현상

- 직조 비단에 종서(縱書)로 ‘關東義兵大將旗’라고 쓰여져 있는데, 비단에 먹물이 번지거나 묻은 곳이 많아 보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임. 따라서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특수한 수선 조치가 필요해 보임.

2) 내용 및 특징

- ‘關東義兵大將旗’는 외당(畏堂) 유흥석(柳弘錫) 의병장의 증손이자 광복회 강원지부장을 지낸 故 유연익(柳然益) 씨가 1981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유흥석 의병장은 한말 대표적 의병장으로 불리는 춘천 출신의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의병장과 사촌간임.
- ‘관동의병대장기’는 유연익 씨가 강원대 박물관에 기증한 4000여 점의 의병 자료 및 유물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음. 유연익 씨는 ‘관동의병대장기’를 강원대 박물관에 기증할 때 “이 깃발은 1895년 을미사변-단발령 후 충북 제천에서 봉기한 유인석 의병장이 이끌던 관동의병의 대장기”라고 하였고,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이 말에 따라 이 깃발이 유인석이 의병활동을 하던 시기인 1896년에 제작된 것이며 유인석 의병장을 상징하는 의병대장기라고 주장해 왔음.
- ‘관동의병대장기’는 일제시기 이후에 직조된 비단천에 종서로 쓰여져 있으며, 비단천 바탕에는 먹이 번지거나 먹물이 묻어 검게 흐릿해진 부분들이 상당함. 현재 이

깃발은 한말 의병운동 관련 깃발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됨.

- 그러나 ‘관동의병대장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첫째, ‘관동의병대장기’의 기증자나 보관자를 이 깃발이 1896년 유인석 의병장이 충북 제천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에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깃발의 천은 일제시기에 직조된 비단임. 따라서 이 깃발은 구한말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제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분명함.
- 둘째, 유인석은 1896년 충북 제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할 때에 자신의 의병진을 ‘호좌의병(湖左義兵)’이라고 불렀고, 인근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사들도 유인석 의병진을 충북 의병이라는 의미의 ‘호좌의병’ 내지 제천의병이라는 의미의 ‘제진(堤陣)’이라고 불렀음. 한말 의병운동 당시 ‘관동의병(關東義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의병활동을 한 부대는 1896년 유인석 의병부대가 아니라 1896년 강릉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인 민용호(閔龍鎬) 의병장과 1907년 군대해산 이후에 충북-경기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인 이인영(李麟榮) 의병장임. 따라서 ‘관동의병대장기’는 유인석 의병장이 남긴 것이 아님.
- 이상의 두 가지 점들을 감안하면, ‘관동의병대장기’는 일제시기 이후, 아마 해방 이후에 유인석 의병장이나 유홍석 의병장의 후손들이 한말 의병운동을 기리기 위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동의병대장기’는 근대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3) 문헌자료

- 박민영, 「민용호의 강릉의병 항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 1991.
- 오영섭, 「한말 13도 창의대장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 오영섭, 「전기의병기 의암 류인석 의병장의 명칭에 대한 재조명」, 『의암학연구』 17, 2017.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유물 소장자의 주장과 달리 1) 1896년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일제시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며, 2) 유인석 의병장을 ‘관동의병대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석 의병장이 사용하던 깃발이라는 ‘관동의병대장기’는 근대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깃발의 재료인 비단에 먹물이 번지거나 묻은 곳이 많아 검게 흐려진 부분이 많아 보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임. 따라서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특수한 수선 조치가 필요해 보임.
- 2. 일제시기 이후에 제작된 깃발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말 의병운동 당시 의병장이 사용한 깃발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깃발을 한말 의병운동 관련 기념제나 행사에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10. 「유인석 친필 서액」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유인석 친필 서액」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18. 7. 20.)에서 문화재 등록검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인석 친필 서액」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유인석 친필 서액	4점	188.5×105.4cm	종이	(연도 미상)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 추진경과

- 항일의병 관련 문화재 등록 확대 자문회의 개최('18. 7. 20.)
 - 동산(動産) 분야 조사대상 15건 선정(1차 조사대상 8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12.)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2.12.)

- 유인석의 유묵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음. ‘節’자 쪽에 주문방인은 인주 문은 상태로 보아 후대에 찍은 것으로 판단되며, ‘義’자 쪽에 쓰인 ‘毅庵柳先生親書’는 유인석이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추서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유물의 제작연도 및 제작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삼기 어려움. 게다가 필획에 먹을 덧칠하였기 때문에 유물의 예술성 및 진정성이 훼손되었음.

○ 000 00대학교 교수(2018.12.12.)

- 1) 글자마다 획의 일부분들이 뜯겨져 나갔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2) 유인석이 휘호한 다음에, 나중에 대자(大字)를 모서리를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분명할 정도로 원래의 작품이 훼손되어 있으며, 3) 이 휘호의 제작자가 유인석이 확실한가를 증명하는 근거나 낙관이 없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000 00대학교 교수(2018.12.12.)

- ‘忠’, ‘孝’, ‘節’, ‘義’ 각 4점 모두 덧칠 등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본 모습을 살필 수 없는 아쉬움이 큰 자료로서 문화재로서 지정여부의 가치를 논할 수 없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유인석 친필 서액」 조사보고서

1. 명 칭 : 유인석 친필 서액
2.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3. 소유자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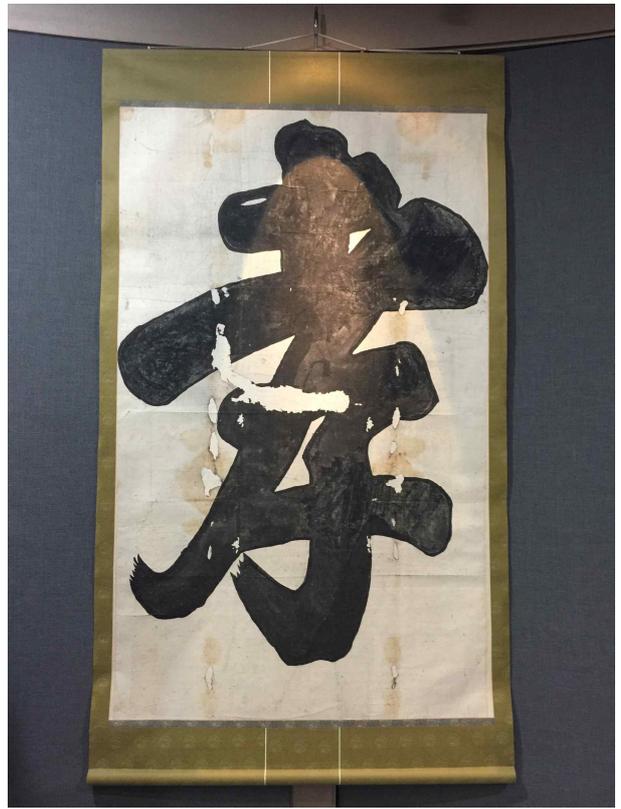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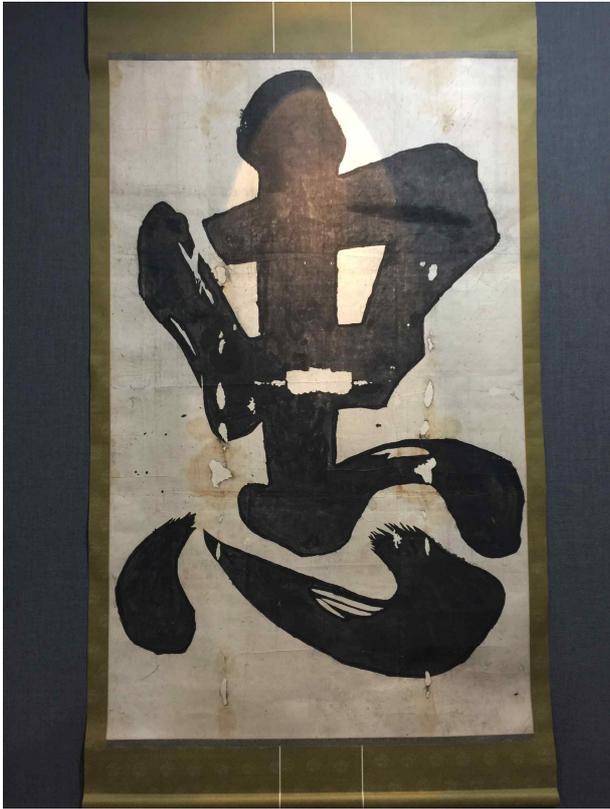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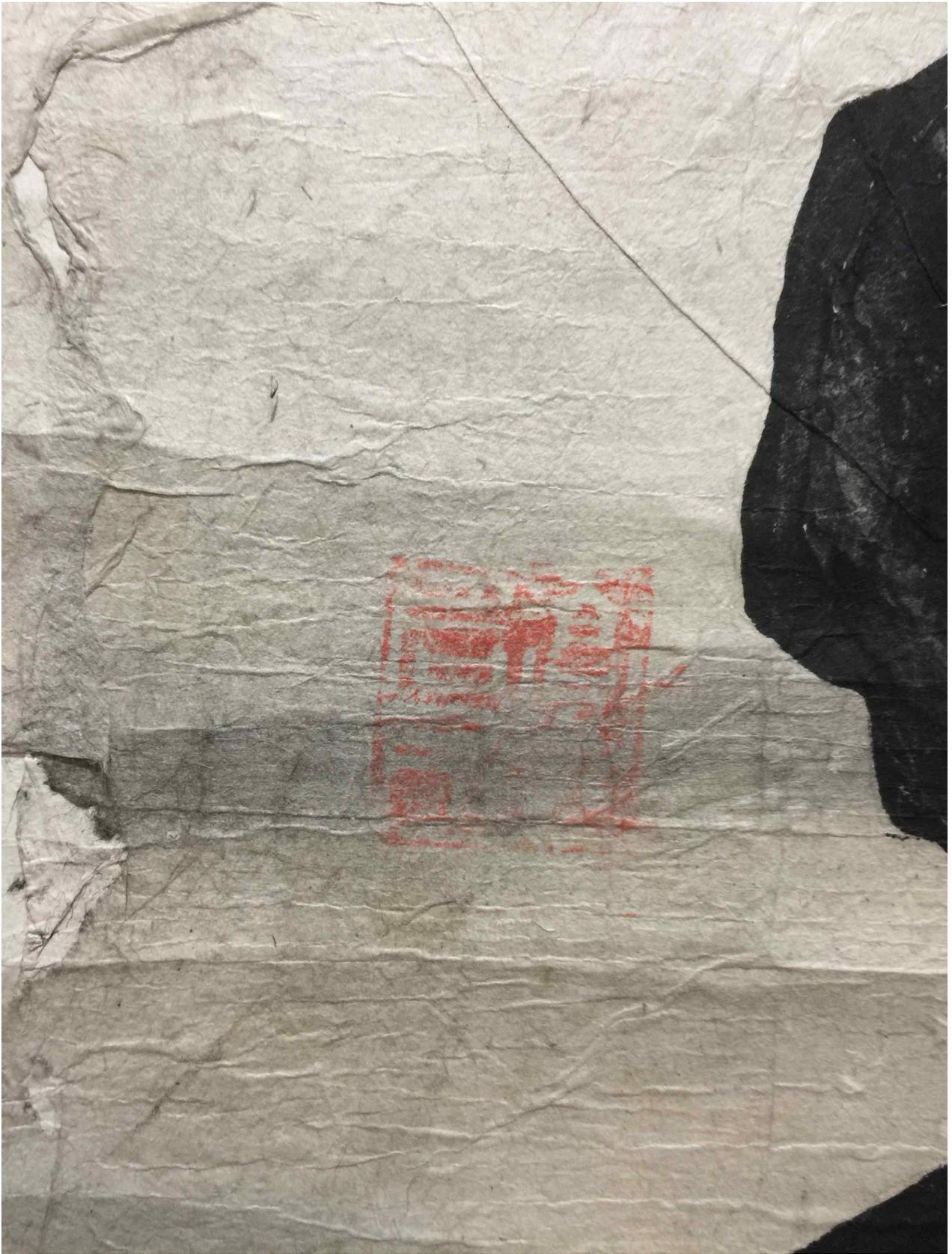
- 한말 의병장 유인석이 남긴 유묵. ‘忠’, ‘孝’, ‘節’, ‘義’, 4글자가 각각 세로 188.5cm, 가로 105.4cm 크기의 종이(한지)에 해서체로 쓰여 있으며, 족자형식임.(도판 1-4 참조) ‘節’ 字가 있는 폭의 글자 좌측 중간에 인장이 찍혀있으며(도판 5), ‘義’ 字가 있는 폭의 하단에 ‘毅庵柳先生親書’라고 가로로 작게 쓰여 있음 (도판 6). 종이에 좀이 슬어 곳곳에 구멍이 났으나 종이를 덧대어(배접 처리) 보수했음. 각 글자는 원래 글씨의 필획에 따라 윤곽선을 두르고 그 내부를 먹으로 덧칠했음(도판 7, 7-1). 유인석의 후손이 관리하다가 1981년에 강원대학교에 기증하였고 현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忠’, ‘孝’, ‘節’, ‘義’, 4글자는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의 친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객관적 근거가 없음. ‘節’ 字가 있는 폭의 좌측 중간에 주문방인의 인장이 있으나 그 위치가 일반적인 낙관의 위치라고 보기 어렵고 인주가 묻은 상태로 보아 후대에 찍은 것으로 판단됨. ‘義’ 字가 있는 폭의 하단에 ‘毅庵柳先生親書’라고 쓰여 있으나 ‘義庵’의 한자 표기가 유인석의 호, ‘毅菴’과 달리 표기되어서 이 역시 후대에 추서한 것으로 판단됨. 4글자 모두 원본의 글씨에 윤곽선을 두르고 그 내부를 먹으로 덧칠하여 예술성이 훼손되었음.

<참고 도판>





書親生先柳庵毅





3)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세로 188.5cm, 가로 105.4cm 크기의 종이(한지)에 해서체로 ‘忠’, ‘孝’, ‘節’, ‘義’라고 각각 쓰인 족자 4점은 유인석의 유묵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없음. ‘節’자 폭에 주문방인은 인주 문은 상태로 보아 후대에 찍은 것으로 판단되며, ‘義’자 폭에 쓰인 ‘毅庵柳先生親書’는 유인석이 썼다기보다는 후대에 추서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유물의 제작연도 및 제작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삼기 어려움. 게다가 필획에 먹을 덧칠하였기 때문에 유물의 예술성 및 진정성이 훼손되었음.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가 부족함.

4) 종합의견

- 유물의 제작연도 및 제작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필획에 먹을 덧칠하였기 때문에 예술성이 훼손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미흡함.

<OOO OO대학교 교수(2018.12.12.)>

1) 현상

- 흰색 바탕에 한문 대자(大字)로 ‘忠’·‘孝’·‘節’·‘義’가 쓰여져 있는데, 바탕지가 변색되고, 대자 글씨가 뜯겨져 나간 부분들이 있고, 대자의 가장자리에 덧칠을 한 흔적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존처리 작업이 시급해 보임.

2) 내용 및 특징

- 유인석 친필 서액 ‘忠’·‘孝’·‘節’·‘義’ 4글자는 유인석이 1895-1896년 전기의병운동 당시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4글자는 유인석의 유학사상과 의병사상과 애국사상이 집약되어 있다는 휘호임.
- 유인석은 한말 의병운동을 선도해 나간 인물임. 그는 1895년 을미사변-단발령 후 충북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최대 1만여 명의 의병을 이끌며 충주관찰부를 점령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고, 고종의 아관파천 후 정부의 의병해산 권유를 거부하고 동지-제자들 수십 명과 함께 압록강 너머 서간도로 이주하여 유교의례와 애국사상을 지키기에 골몰하였음.
- 또한 유인석은 을사늑약 전후 일제의 침략이 다시 거세지자 고향 춘천에서 분연히 일어나 충북-강원-황해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의병창의를 적극 지도-후원하고,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연해주 의병세력에 참여한 인사들을 격려하고 의병세력과 계몽세력이 연합하여 조직한 전국적 의병조직인 13의군(十三道義軍)의 총책임자인 도총재(都總裁)에 올랐음.
- 유인석은 한말 의병의 총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말 항일의병운동을 선도해 나간 인물임. 또한 한말 주자학적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한 화서학과(華西學派)의 마지막 지도자라는 점에서 정치적·사상적 비중을 큰 인물임. 나아가 유인석은 동양 유교사상의 입장에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 문물과 제도의 유입과 논리를 반대한 『우주문답』이란 기념비적인 저서를 남겼음.
- 현재 유인석의 친필 문건은 서한을 비롯하여 다수가 남아있음. 그러나 ‘忠’·‘孝’·‘節’·‘義’ 4글자와 같은 대자(大字)의 휘호는 없다는 점에서 이 4글자의 휘호는 의미 있는 유물임.

- 그러나 유인석의 ‘忠’·‘孝’·‘節’·‘義’ 4글자는 1) 글자마다 획의 일부분들이 뜯겨져 나갔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2) 원작자가 휘호한 후 나중에 대자(大字)를 모서리를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분명할 정도로 원래의 작품이 훼손되어 있음.
- 3) 문헌자료
- 의암학회 편, 『의암 유인석의 항일독립투쟁사』, 의암학회, 2005.
 - 오영섭, 『한말 유림의병의 선도자 유인석』, 역사공간, 2008.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유인석의 친필 서액인 ‘忠’·‘孝’·‘節’·‘義’ 4글자는 한말 항일의병운동을 선도해 나간 유인석 의병장이 남긴 대형 휘호라는 점에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그러나 1) 글자마다 획의 일부분들이 뜯겨져 나갔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2) 유인석이 휘호한 다음에, 나중에 대자(大字)를 모서리를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분명할 정도로 원래의 작품이 훼손되어 있으며, 3) 이 휘호의 제작자가 유인석이 확실한가를 증명하는 근거나 낙관이 없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글자마다 획의 일부분들이 뜯겨져 나갔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불량하며, 대자(大字)를 모서리를 붓으로 덧칠한 흔적이 분명할 정도로 원래의 작품이 훼손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없음

<OOO OO대학교 교수(2018.12.12.)>

- 1) 현상
- 忠, ‘孝’, ‘節’, ‘義’ 각 4점 모두 덧칠 등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본 모습을 살필 수 없음.
- 2) 내용 및 특징
- 유인석(柳麟錫 1842(헌종 8)~1915)은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菴)이며,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조선 말기의 위정척사론자이자 의병장임. 이 자료는 의병장 유인석의 친필서액으로 명명되어 있는 충성과 효도 및 절개와 의리를 뜻하는 ‘忠’, ‘孝’, ‘節’, ‘義’의 네 글자의 서액임. 그러나 4점 모두 덧칠, 인위적 그리기와 필획 그리기 등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원래의 모습을 전혀 살필 수 없음. 실제 원본이라 하더라도 고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 3) 종합의견
- 의병장 유인석의 친필 서액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忠’, ‘孝’, ‘節’, ‘義’ 각 4점 모두 덧칠 등의 손상이 매우 심하고 본 모습을 살필 수 없는 아쉬움이 큰 자료로서 문화재로서 지정여부의 가치를 논할 수 없음.



<그림 1> 충



<그림 2> 효



<그림 3> 절



<그림 4> 의

보 고 사 항

11.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계획보고

□ 전시 배경 및 목적

- 민주와 자유가 평범한 일상인 대한민국의 오늘이, 100년전 수많은 독립투사가 피와 눈물로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상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의미와 미래 비전을 '항일독립문화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함

□ 전시 개요

- 전시명칭 : 문화재에 깃든 100년전 그 날
- 기간 / 장소 : '19.2.19(화) ~ 4.21(일)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 언론공개('19.2.18(월), 14:00), 개막식('19.2.19(화),14:00) 개최
- 참석규모 : 정부 주요인사, 독립운동관련 후손·단체장 등 200여명
 - * 개막행사에 초청 인사외 일반 시민(참배·관람) 300여명 참여 예상
- 전시유물 : 건국강령초안, 일제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등 40여점
 - * 건국강령초안, 이육사 친필원고(바다의 마음 편백), 광복군가집, 매천 황현 유물 등 원본전시
- 주최 : 문화재청, 3·1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주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전시 방향

-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3.1운동을 통해 민족을 자각하고 독립의 염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이고 해방으로 이어지는 과정 도출
- 서대문형무소 옥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격동의 시기를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으로 이겨낸 항일독립의 역사를 조명
 - 대한민국 건국의 미래상을 제시한 조소앙 선생의 '건국강령 초안'을 중심으로 100년전 독립운동가가 꿈꾸었던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중점 소개

□ **전시 문화재[안]**

- 경술국치 : 매천 황현 절명시 및 안경 등 생활 유물
- 독립선언 : 대동단결선언서, 2.8선언서, 3.1독립선언서 등
- 3.1운동 : 3.1운동 영상자료, 태극기 목판, 유관순 열사관련 사진자료 등
- 임시정부 : 건국강령 초안, 외교서한, 임시헌법, 임시의정원 문서 등
- 독립투쟁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이봉창·윤봉길의사 선서문, 이육사시인 친필시 등
- 광복군 :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 군복, 광복군가집 등
- 환국 : 재유기념첩, 환국기념서명포, 김구 친필유묵 등

□ **전시 프로그램[안]**

구분	주제	내용
들어가며	식민지 감옥에 살다	독립의 열망
1 부	3.1운동, 독립의 꽃을 피우다	독립을 선언하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만세운동
2 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의 희망이 되다	희망의 문을 열다
		임시정부의 고난과 극복
		독립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 100년전의 이상향, 임시정부의 헌법정신
3부	광복, 환국	광복, 임시정부의 환국

※ **관련 행사 < 학술 심포지엄 >**

- 주제 : 항일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활용방안
- 일시 / 장소 : 2019. 2. 22.(금) 10:00 ~ 4:30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회의실
- 주최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향후 계획**

- 행사 추진(전문가 의견수렴, 유물 협의, 언론 홍보 등) : ~ 개최 전

□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12.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19. 1. 21.(월), 13:00~15: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오용섭(인천대 교수, 문화재위원), 한시준(단국대 교수), 최기영(서강대 교수),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김용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 (내용) 임시정부 목록화 결과물(A등급 34건 / B등급 104건)을 바탕으로, 우선 조사대상 선정 및 향후 추가 검토 대상 등 논의

□ 회의결과

- 우선 조사대상 : 11건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목록화 연구 사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고 희소성을 지닌 유물.
 - * 기존 문화재위원회 등을 통해 부결(보류) 되었으나 보완되지 않은 건, 다량 인쇄되어 배포된 건 등은 제외
 -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추어 등록검토 가능한 유물 등
- 추가 검토 대상 : 9건
 - 목록화조사 결과 중요성이 높은 유물이나, 관련 유품 또는 유사 유물 현황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유물(안창호, 이혜련, 한국기념 서명포 등)
 - 자료 내용의 해제 등 사전조사 및 선별이 필요한 유물(조소앙 후손 소장자료)

□ 향후계획

- 문화재 등록 검토조사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조사 실시('19. 1월~)
 - * 우선 조사대상 추천 건은 '19. 4월까지 전문가 현지조사 추진
 - * 이봉창 유물 3건(선서문, 친필편지, 송금전표)은 기 조사완료('18.12.21.)
-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문화재 등록 추진('19. 1~8월)
 - * 조소앙 후손 소장의 임시정부 관련 자료(한문, 중문, 영문 등)는 면밀한 조사 등을 위해 해제 용역('19년 상반기) 추진 검토

붙임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목록 1부. 끝.

□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연번	자료·문화재명	제작자 [관계자]	제작시기 [사용시기]	소장처
[우선 검토 대상]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필첩 (在渝記念帖)	임시정부 요인 다수	1945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	자해자전(慈海自傳) 초고	이자해	1919~1960	독립기념관
3	한국독립운동사(상)	김병조	1921	독립기념관
4	김의한 광복군 임명장	김의한	1940	김의한 후손
5	임시정부의 문영박 애도문(특별), 추조장	(문영박)	1931	남평문씨세거지
6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명 및 편지, 추조장	(황상규)	1932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7	동유약초(조소앙 일본 유학시기 일기)	조소앙	1904~1912	조소앙 후손
8	이봉창 의사 선서문	이봉창	1931	국립중앙박물관
9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K.S 서간문)	이봉창	1931	국립중앙박물관
10	의거 자금 송금 증서(영자지불통지서)	이봉창	1931	국립중앙박물관
11	이승만 유물(임시정부 관련 문서 등)	이승만	임정시기 전후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추가 검토 대상]				
1	조소앙 유물(임시정부 관련 문서 등)	조소앙	임정시기 전후	조소앙 후손
2	임시정부헌법 / 임시의정원법	조소앙	1919~1945	조소앙 후손
3	이규채 유물(연보, 낙관 등)	이규채	확인 요	이규채 후손
4	안창호 유물(수첩, 명함첩 등)	안창호	"	도산안창호가념관
5	이혜련 유물(재봉틀 등)	이혜련	"	도산안창호가념관
6	한유한 유물(태극기, 가극 아리랑 등)	한유한	"	한유한 후손
7	박영준·신순호 일괄유물(결혼증서, 치파오 등)	박영준 신순호	"	경기도박물관
8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임시정청 엽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	박천민
9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서명포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5	독립기념관